

# 東大新聞

근지언  
금주일언

올등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비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간사하다. 지혜로와서 사념(邪念)을 일으키지 않고 정도(正道)를 생각하면 도가 이루어 진다.  
법구경·도행품 397절

1998년 (불기 2542년) 1월1일 (목요일) 제 1239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 -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섭 / 부주간 조장백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0561)770-2057

##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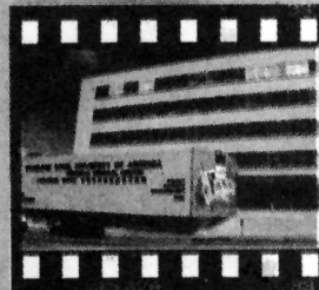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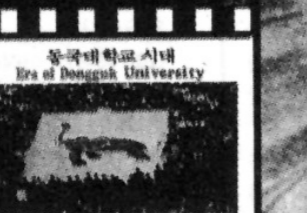
1906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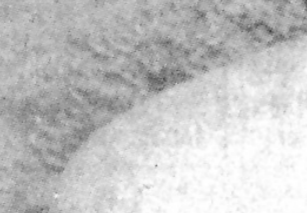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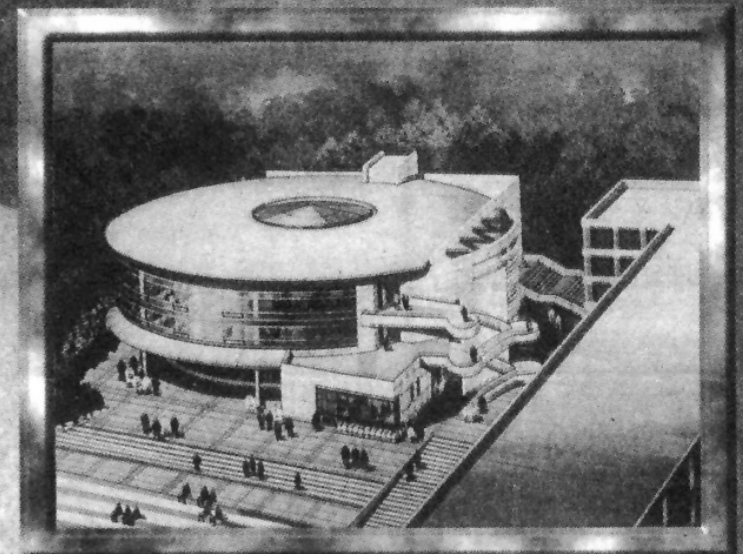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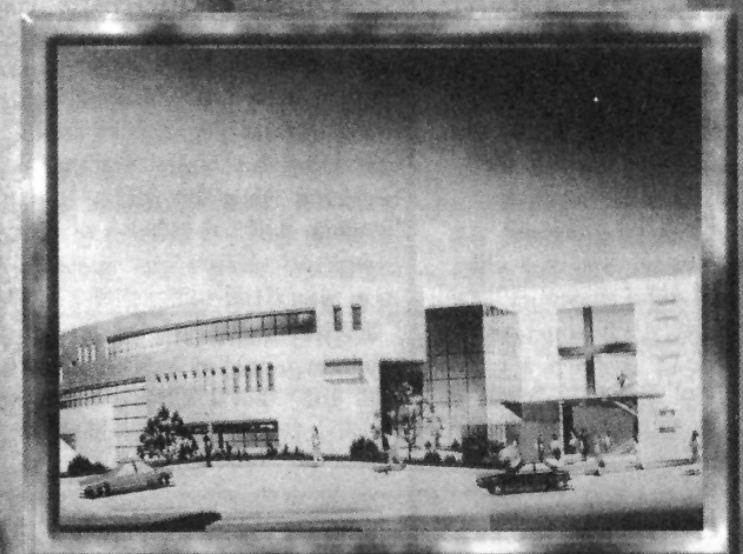
1906



● 제3캠퍼스



● 룸비니관



● 정보매체센터

참사람 열린교육,  
그 꿈이 이제 현실로 완성됩니다

**색** 글암은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그 완성도를 인정받은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1998년 제3 캠퍼스 건립, 룸비니관, 정보매체센터 건설 등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과 '참사람 열린교육' 여념의 구원으로 식골암과 같이 21세기 가장 완성도 높은 민족대학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기획 : 김기영 본사 편집장

2면 신년사

98년은 무슨해? 바로 '범' 해! 동국을 대표할 사람들은 '범'을 어떻게 맞이할까? 신년을 맞이하는 그들의 표부를 들어본다.

3면 시사논단

5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박정, 전종, 문종, 평통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과 책무에 대해 듣는다.

9-12면 동대문학상

우리동국이 '민 문학' 이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장지 문학계를 이끌어갈 그들의 혼이 깃든 작품을 소개한다.

13면 동대학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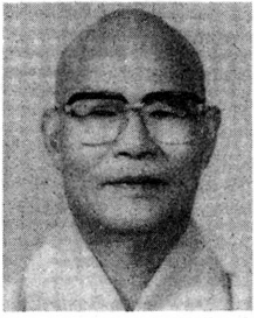
김남기(무역3)군이 '인터넷'기대를 통한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논문으로 사회과학부문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MF시대에 경제회생방법을 살펴본다.

16면 만화로 본 97년

"기진원으로 뭘 먹지?"라는 격정겨운 남고 97년의 성적표는 'IMF' 옷을입어 그리지 않던 97년을 만화로 엮어보았다.

# 신년사 무인년을 맞이하여

## 경제대란·인간상실시대 지혜와 자비로 불국정토 실현하길



대망의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동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정축년은 치열한 경쟁을 보인 대통령선거와 IMF지원에 따른 경제난국 등이 겹쳐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국대학과 동국대학교에서는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다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는 동국대학교 개교91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집된 해로서 특히 동국발전기금이 3백50억원에 육박하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서울 캠퍼스에는 정보매체센터의 기공 및 대각전 법당의 개원 등이 있었고 경주캠퍼스에는 영산관의 준공과 경주병원의 증축 및 부속유치원의 개원에 따른 마무리 작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밖에도 동국발전에 큰 원력을 지닌 송석구 총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개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점이나 LA에 있는 동국로얄대학교의 건물을 구입한 점, 그리고 일산의 제3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제반난

제들을 극복, 사업추진이 가속화되는 등 실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학의 양심과 학문적 자존을 제고하고 학사행정의 개선과 내실을 기함은 물론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세계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해야 할 때가 생각합니다. 그 청사진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동국의 오랜 숙원인 제3캠퍼스와 불교병원의 건립이기에 전 동국인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사회현실은 몹시 부도덕하고 인간정신이 황폐화하여 인간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공해로 자연 또한 날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건전한 인간정신의 회복이며 인간정신의 회복은 우리 동국학원의 건학정신과 같이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아완성과 불국정토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몹시 어렵고 힘든 시련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 동국가족들은 철두철미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고 보다 겸소하고 근면함은 물론, 학교 발전에도 헌신적인 노력과 지혜를 결집시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부처님의 크신 광명으로 온 나라에 풍요와 평화의 기운이 충만하고 우리 동국인 모두에게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신년 인사를 가드립니다.

송석구 이사장

## 개교 91주년, 괄목할 만한 발전 거듭 제3캠퍼·불교병원 건립에 힘 모아야



희망의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정축년은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위시하여 국가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달은 등 그야말로 격동과 고난으로 가득찬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개교 91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기념 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특히 동국발전기금이 3백5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였고 그 밖에도 서울과 경주캠퍼스에 정보매체센터의 기공, 대각전의 개원, 영산관의 개관, 유치원 완공, 경주병원증축 등 실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온 한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사람 열린교육을 지속적으로 표방해온 본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1위로 선정된 쾌거는 동국의 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국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일산에 건설하려는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의 건설 사업은 급년에 그 착공의 광과래를 올릴 만큼 소정의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점, 전 동국인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재단과 종단의 전폭

적인 지원은 물론 동국전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각고의 노력과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동국을 아끼는 15만 동문여러분의 성원 덕택으로 아오며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적으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자포자기해도 아니될 것이며 이러한 역경일수록 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역량과 과감한 실천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나라의 역사가 정외로운 애국애족의 정신과 강력한 추진력있는 지도자와 건전한 국민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대학의 명운도 참다운 애교심과 건학이념에 투철한 지도층과 사명감에 넘치는 전체 구성원에 의해서 새롭게 진척된 단명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종단과 재단, 교직원 재학생 등 온 전체 동국인 여러분의 화합과 협조,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험난한 역경과 파고(波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위대한 동국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창조할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변화와 개혁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며 여망입니다. 본인은 거듭 우리대학의 학문적 성과와 학사행정의 내실화에 전력을 다할 뿐 아니라 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 헌신적으로 노력할 각오이니 새해에도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 동참, 성원에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거듭,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송석구 총장

## 모교발전에 앞장선 자랑스런 동국인 장학금·동창회관 기금 모금에 힘쓸때



동국역사의 새로운 장인 무인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15만 동국인과 다시 건강할 모습으로 1998년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열성을 갖고 자신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동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국정신을 빛내주신 동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15만 동국인 여러분께 건승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난해 개최한 '동국인의 밤'과 '동국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우장학금으로 후배 동국인 40명에게 4천만원의 고시장학금 5백만원 등 총 4천5백만원의 장학금에 후배 동국인 40명에게 4천만원의 고시장학금 5백만원 등 총 4천5백만원을 재학생들에게 복돋아 주는 한편 선배들의 후배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무인년 새해, 우리 동국인들이 이룩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총동창회와 동국대학교의 발전은 동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짐지워지는 사명이므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을 이끌어 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장학금 지급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장학금 10억원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동국대학교의 총동창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타대학교의 동창회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더라도 동문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회는 총동창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동창회관 건립은 몇몇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만 동국인 전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과의 혁신과 과감한 개혁으로 이 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회기적인 사고의 전환, 국제 감각으로 무장한 우리 동국인들이 앞장선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충분히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우리 15만 동국인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동국발전과 총동창회의 번창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지극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를 필적할 새해에도 동국인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황명수 총동창회장

## 경제회생 앞장섰던 동국인 화합과 단결로 본보기 보이길

새해를 맞이하는 동국인 모두가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은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불속에서 총장직인 성장만을 도모했던 우리경제가 IMF의 태풍을 맞아 끈부박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8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의 포효와 함께 우리 모두 지난해의 불안과 어두움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민족의 지력으로 국력회복의 기틀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입니다. 새해에는 온 국민에게 만연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기반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50년만에 맞

이한 여야간의 정권교체는 새로운 도전과 자극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IMF의 한파로 인한 경제체제의 국면탈피를 위해 지난해 12월3일에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주축이 되어 '동국인의 생활경제'를 선포하고 우리 동국인이 나라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실천의 의미를 모아 우리 동국인이 먼저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대학에도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년간 연속적으로 '교육개혁

## 무인년 '잘풀리는 시작점' 역경당고 일어서야 할때

동국인 가족 여러분,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감회가 예년과 유난히 다른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시점에서 21세기를 펼쳐나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과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너'는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앞장서서 부추겼던 한탕주의와 횡감만능주의 등 민주화의 과정속에서 오로지 부정적인 역할이 부각되어 극도의 혼란과 불신에까지 이르게 된 과거 그리고 현재, 영세에 대중이 아닌 일부 사벌품에 새삼 숙연해지는 새해 아침입니다.

잡보장경(雜寶藏經) 불경중에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해방이후 어려웠던 상황속에서도 곳곳에 역경을 참아 이겨냈기 때문이며, 오늘 우리가 이렇듯 어려운 경제현실에 봉착하게 된 것은 형편이 잘 풀릴 때 조심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본 동국대학교 노동조합은 대학의 발전과 사회 및 국가를 위한 일념으로 약 10년전 창립하여 그동안 단순히 소속원들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활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국의 발전은 물론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행정적 봉사, 나아가 좋은 세상, 밝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봉사에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왔고 이러한 사명의 실천

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실에 절망하고 개탄하기 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역경을 당고 일어서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형편이 잘 풀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 무인년의 희망찬 새해 아침에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동국인 모두에게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힘찬 인사를 정중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옥 노동조합 위원장

## 동악광장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불교대 학생회장

△제30대 문과대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문과대 일선명진인들을 묶어내는 사업과 고민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대 학생회가 학우들 속에서 울타리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과대의 자부심을 높여낼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새내기 새로배움터, 농활, 출범식 그리고 명진제 속에서 과학생회의와 특색있는 연대를 이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학우들의 대중적 참여속에 진정한 학생회의 모습을 공유하고 학생운동의 순수성과 한층번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30대 문과대 자주적 학생회는 학우들 속에서 함께하는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학우들의 고민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문과대 학생회장

△제30대 생자대 학생회는 98년 생자대 5백여 학우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학우들과 유리되었던 몇몇 일꾼만의 학생회에서 학우중심속에 우뚝서는 자주적 학생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생자대 학우 한명, 한명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학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가는 학생회가 되었습니다.

9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자대 학생회장

△새시대 미래내골 2천7백 학우의 삶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제 14대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작은 실천으로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야간강좌 교육의 질적 발전과 학우들의 복지문제를 교수, 직원, 학생 3주체의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들이 동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98년 한 해 열심히 살갑시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알립니다

학생회장 미선출 단과대는 부득이 신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방글

△선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5백 불교문화대 학우 대중의 희망찬 외침으로 제5대 불교문화대 학생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는 불교문화대 학생회가 포교의 품으로 뛰어들어 불교사회로부터 학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서의 인정을 받아내고, 학부로서의 '포교 및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불교문화대 학생회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이에 수 많은 학우대중과 불교사회의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학생들에 대한 정권의 광복한 탄압과 IMF 국제금융, 해방 50년 처음으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97년 한해도 지나가고 또다시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그 마음으로 학우들과 함께 고민하고, 학우들에게 다가서는 학생회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올 한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청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문대 학생회장

△지구상에는 약 5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50억이란 숫자는 하나, 하나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50억이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 제2의 치욕을 겪었던 올해는 그 하나의 힘이 필요했던 때였고, 새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편 정국을 의심하고 지켜보며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 또한 하나가 할 일입니다.

온방글 1만 학우 여러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활기차게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 학생회장

△IMF한파가 물러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11대 자주청년 법정대 학생회는 98년 한해를 진정한 학우들이 주인되는 학생회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98년 한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1대 자주청년 법정대 학생회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대 학생회장

△이제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의 연대의 해 97년이 저물고 희망의 9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97년 한 해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수 많은 학우들이 구속수배 되었으며, 우리 온방글과 학생회가 학우들로부터 괴리되고 말았습니다.

자주 상경대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가도록 하였습니다.

-상경대 학생회장

△1998년 무인년을 맞이하여 8백 온방글 야간학우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무인년 한해 학우들 가정에 반박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믿습니다.

저희 야간강좌총학생회는 무인년 한해를 생활함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정직과 맑음을 구현하는 것이라 믿고, 절대 무 부패해서 인텔 소금과 같은 자세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는 여론정치를 꽃피우겠습니다.

민우회를 이룩해야 할 때 우리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듯이 제4대 야간강좌총학생회는 무한경쟁의 21세기에 야간강좌가 온방글에 우뚝설 학우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기록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제30대 생자대 학생회는 98년 생자대 5백여 학우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학우들과 유리되었던 몇몇 일꾼만의 학생회에서 학우중심속에 우뚝서는 자주적 학생회로 거듭나겠습니다.

# 연극영상 특차 54.6대1

## 기준자격 웃도는 상위권 학생 대폭 지원

구립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본교 98년도 특차 모집전형에서, 정원 1천2백8명 모집에 총 2천4백28명이 지원해 총 2.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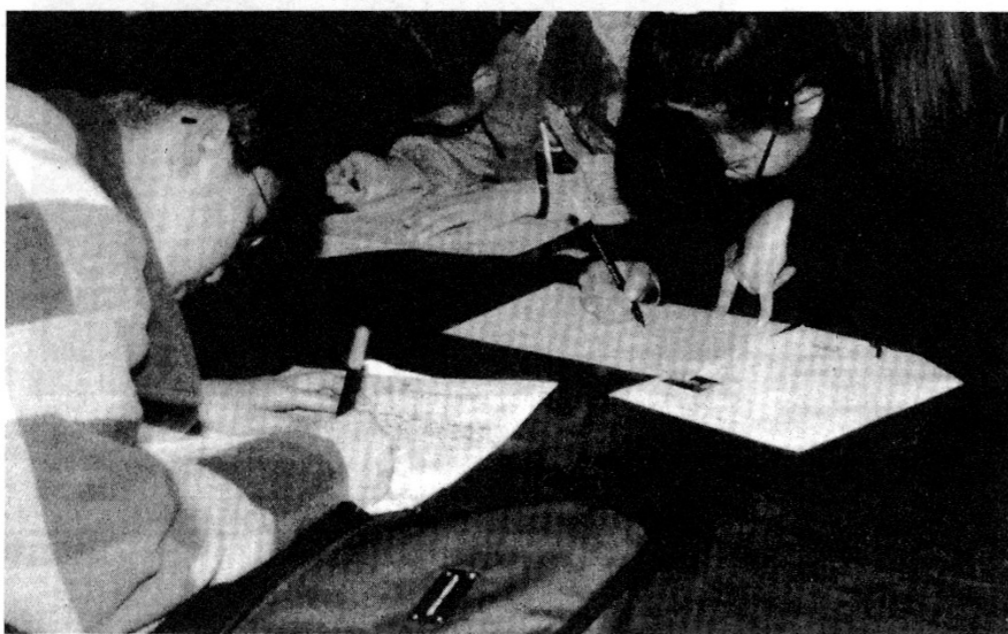
서울캠은 1천1백5명 정원에 2천3백34명이 지원해 2.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주캠은 1백3명 모집에 94명이 지원해 0.9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특차모집에서 서울캠은 사과대 경찰행정학과에 지원한 김성진군이 총 1천점 만점에 9백23.85를 맞아 수석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주캠은 한의예과에 지원한 석명진군이 9백61.15로 수석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전형에서는 10명 정원에 5백46명이 지원한 연극영상학부(연기기술)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서울캠 전자전기공학부도 또한 16명 모집에 1백5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입학과는 "수능성적 상위 소수로 제한된 이번 모집에서, 기준자격보다 오히려 1에서 1.5% 정도 높은 상위권 학생이 대폭 지원한 것이 이번 특차모집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립 29일부터 31일까지는 정시모집전형이 실시됐다. 서울캠은 명진관, 도서관,



입시 경쟁... MF한피에도 불구하고 입시열풍은 뜨겁기만 하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체육관에서 원서를 쓰고 있는 예비 98신입생들의 모습.

IMF한피에도 불구하고 입시열풍은 뜨겁기만 하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체육관에서 원서를 쓰고 있는 예비 98신입생들의 모습.

체육관에서 각각 분산접수했으며 경주캠은 문무관과 학생회관 식당에서 접수를 마쳤다.

전형일은 '나' 군에 속한 서울캠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논술 및 면접전형을 치르고, '다' 군인 경주캠은 22일부터 26일까지 면접만을 실시한다. 한편 22일부터 정시모집 전형을 치르는 경주

캠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면접시험 전날(오는 21일)부터 시험당일까지 이틀간 기숙사를 개방하기로 했다.

기숙사 이용과 관련해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본교에서 접수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접수처에 별도로 문의처를 마련했으며, 타 지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들은

기숙사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험생들을 위한 지원접수현황이 지원일 동안 중앙당에서 대형화면을 통해 수시로 집계 발표되었으며, 인터넷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ac.kr>)에 접속하면 지원현황을 시간별로 파악할 수 있다.

# 고광덕 불광사 법주 스님 불교병원건립기금 2억원 기탁

전 동국학원 이사를 역임한 고광덕 불광사 법주스님이 본교에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구립 24일 2억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은 한보광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장과 송석구 총장이 불광사를 방문, 기금을 전달받은 것이다.

전달식에서 고광덕 법주스님은 "스님이나 불교신도가 수도권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동대에서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답사를 통해 송석구 총장은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빠른



시일안에 수도권에 불교병원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밖에도 행정대학원 재학생들이 지난 29일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개교1백주년 기념본부에 전달했으며, 교수권 언론정보대학원 18기 회장도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 김용철 법인사업부장 소설 '폭목' 제23회 '한국소설 문학상' 선정

본교 보현회 회장이며 동국학원 법인사무처 사업부장으로 재직중인 김용철(소설가)씨가 구립 17일 한국소설가협회가 선정한 제23회 '한국소설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중편소설 '폭목(暴木)'이며 시상식은 오는 22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한국소설문학상에는 김용철씨의 '폭목'과 작가 강승원씨의 '장편소설 '남한강'이 수상했다.



김용철씨의 '폭목'과 작가 강승원씨의 '장편소설 '남한강'이 수상했다.

# 본교 임소옥동문 감정평가사 수석영예

건설교통부가 구립 9일 발표한 제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1백 1명 가운데 본교 경주캠 졸업자 임소옥(법96졸)씨가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여 가격으로 표시하는 재

산관정 전문가로, 매년 1회 국가시험으로 선발된다.

이와 관련해 취업과측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본교에서 처음있는 일로 본교 졸업생이 최고 특점의 영예까지 얻어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 참사람 봉사단 대학생 참여 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오는 27일까지 '98년도 학과 및 동아리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 공모는 학과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장학과 소정양식의 지원신청서 1부를 작성해 장학과에 접수·신청하면 된다.

봉사활동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총천민원의 지원예산중 평균 20만원씩을 지원받

게 된다.

한편, 참사람봉사단은 지난해 10월 중구청 주관으로 열린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 구립 23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국참사람봉사단은 지난 12월 16일 학교내 정문, 혜화문, 후문과 명동일대에서 '나의 알뜰 생활경제로 나라 경제를 살리시다'와 '어려울때 일수록 이웃을 먼저 생각합시다' 등의 내용의 캠페인을 펼친바 있다.

# "집에서 수업 받는다" '가상대학' 창작분야 신청

본교는 집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가상대학 시범운영 대학에 '창작' 분야를 특성으로 구립 17일 교육부에 신청했다.

가상대학은 오는 2월 9일 교육부가 5개 가량의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인데, 시범운영 대학으로 선정되면 올해부터 2년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가상대학을 시범운영하게 된다.

이번 교육부에 따르면 가상대학 시범운영 대상에 모두 71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본교를 비롯한 14개 대학은 단독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57개대와 SK텔레콤 등 10개 기관은 국민대와 흥익대가 공동으로 '서울사이버 디자인학'을 구성하는 등 2~22개 대

학·기관끼리 7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운영을 신청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들이 단독운영보다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운영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가상대학 프로그램을 집중개발해 다른 대학과 교류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강좌를 공급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본교 송석구 총장은 "컨소시엄 형태는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단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 국제정보대학원 신입생모집 12일까지 접수·전형은 17일

올해 최초로 신설된 국제정보대학원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국제해양정책학과 △정보보호학과 △국제관계학과 △정보보호전공 △국제협상·통상전공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월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전형일시는 1월 17일이다. 또한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직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교무정책과장은 국제해양정책전공, 정보보호전공, 국제협상·통상전공 분야를 모집하며 전형방법은 석사과정과 동일하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 (260-3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시 합격률 80%

제62회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결과가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본교에선 재학생(졸업예정자) 50명중 42명, 졸업생 5명중 4명이 국사에서 합격해 80%의 합격률을 보였다. 대구 사대부고에서 치러진 국시의 합격기준을 살펴보면, 정과목 총점의 60%이상, 매과목 40%이상 득점해야 한다.

한편, 본교는 금강생활관(관장=김동현·한문학) 보현동을 지난 달 12일부터 22일까지 국시를 치루는 50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번 국시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저조한 합격률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 '97.12.1-12.29 )

이상식(임학56졸, 전신필자원학과교수) 2백만원  
한경구(임학64졸, 한수종합조경 대표) 5백만원 (합1천만원)  
김선근(불교학부교수)5백만원 (합1천7백70만원)  
박정국(화학공학과교수)2백60만원 (합1천7백60만원)  
박종린(역경원직원)1백만원  
김계문(의예과1년특례입학 김진희의 부, 아르헨티나 거주 교포)20만원  
박경배(의예과2년특례입학 박종석, 박종영의 부)60만원  
고수근(언론정보대학원18기)1천만원  
행정대학원재학생일동 2천만원  
김정미(행정대학원) 98.3입학)502만원  
장진(경영대학원47기)1백16만2천6백원  
한경환(경영대학원47기)1백16만2천6백86원 (합2백26만2천6백86원)  
한규범(경영대학원47기)1백만원 (합2백36만2천6백86원)  
이철희, 최충운, 여정규, 김정래, 심상구(이상 경영대학원47기)각 16만2천6백원  
고광덕(불광사법주, 전동국학원이사) 2억원  
김중상(불교신도)1백만원  
윤길복(불교신도)52만원 (합62만원)  
윤정훈(불교신도)1백만원  
이동은(불교신도)32만원 (합43만원)

대린장학문화재단(이사장 이광홍) 5백만원(합1천만원)  
대전회 2만원(합26만원)

\* 동국사랑저금통기금-누계 ( '95.12'-'97.12.26현재, ₩3,029,120 )  
김삼애(취업과)1만3천2백20원 (합5만1천7백70원)  
신관호(100주년사업본부발원협력팀장) 1만 3천 10원(합12만2천6백40원)  
박종린(역경원직원)1만17천원  
송석구(총장)3만3천3백원 (합17만5천9백80원)

\* 특정목적기금  
송원주(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1억원 (합2억원)-경주서림원건립기금  
간삼중합건축(대표 김지호)1천5백만원 (합2천5백만원)-교육환경개선연구비  
허천택(영문과교수)3백만원(합1천5백만원)-영어영문학과발전기금  
백원기(영문78졸, 전신원 전임) 1백만원  
임종현(영문81졸, 중소기업중앙회) 1백만원

\* 장학기금  
이원욱(보창직물대표)1억원-인봉장학기금  
불교학생회동문일동(회장 김광득) 1백50만원  
김용현(통학64졸, 근로장학사동문회장) 1백50만원

**개교 1백주년 기념 본부**

**기획 광고**

**戊寅 새해를 백두산 大虎의 기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동대신문사

# 방중 중운위 회의 활발히 진행

## 학자투·등투, 예비대 일정등 중요 사항 합의 못돼 학생회칙 개정 구체적 방향 논의될 듯

각 단체 및 자치기구의 인수인계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백재욱·법3 이하 중운위) 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논의는 △중운위 위원과 학생과의 상견례 △학자투 및 등투 방향 △예비대 일정 △학생회 간부 수련회 개최 △수습제작 △경제 캠페인 추진 계획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운위 위원들과 학생과(과장=황래열)와의 상견례가 지난달 29일에 있었으며,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 및 등록금투쟁(이하 등투)과 관련된 안건은 각 단체 및 자치기구별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나, 연합해서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사항만 합의된 상태이다.

예비대학과 관련된 논의에선 총학생회관하에 동일장소 개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정하지 못했으나, 오는 1월 중순까지 각 단별로 입장 정리되면 정확한 일정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장의 제안으로 논의된 각 단체 및 자치기구 정·부회장간 수련회 개최여부는 이날 참석한 중

운위 위원 전원이 수련회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총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이번달 중순까지 정확한 일정을 수립해 학생회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수습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총학생회로 추진하되 계약전에 중운위를 소집해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수습대와 관련해 백재욱 총학생

회장은 "최대한 4천원대로 가격을 맞추겠지만,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2차 중운위는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안건은 학생회칙 개정과 각 단체 및 자치기구별 복지안 등이며, 특히, 지난해 선거를 치르면서 지적된 바 있는 학생회칙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시선 집중

## 우리는 하나



지난달 23일 '제4회 동국인의 밤'이 1백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교내 식당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본 행사 후 만찬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 정희정 기자

### 경상학부 재선거 실시 투표율 52.7%

지난달 4일 경상학부 재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이성우(경상학부1) 후보가 당선됐다.

오는 3월로 예정되었던 재선거를 앞당겨 실시하게된 것에 대해 선관위측은 "학부사정상 올 3월에 선거를 치루기가 어려워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결과를 총유권자 5백82명이 투표해 찬성=2백65표, 반대=31표, 무효=10표, 분실=1표 등으로 52.7%의 총투표율을 보였다.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회룸 건설 △체육대회 추진 △반대항 친목도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우 당선자는 "좀 더 나은 경상학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생활경제운동, 3주체 중심으로 전개 차량 5부제등 적극적 참여 필요

'동국인 생활경제 운동'이 교수회(회장=오출세·국문학), 직원노조(위원장=이성기), 총학생회(회장=백재욱·법3)를 중심으로 지난달 9일부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학교측은 김병기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동국인의 밤'이란 생활경제 운동 경주캠퍼스 추진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산하기구로 추진운영위원, 집행위원, 집행본부 등을 구성했다.

동국인 생활경제 운동의 세부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승용차 5부제 운영실시 △출근버스 노선확대

및 조정 △승용차 함께 타기 △출장 및 해외연수 자제 △에너지 절약 및 일상적 절약운동 강화(98학년도부터 개인 사무용품 지급 중지, 화장실 33개소 폐쇄) △중점적 예산 절감 종합 대책수립 등이다.

또한, 지난달 12일에는 '경제 살리기에 솔선 합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무과 한 관계자는 "비록 학내민의 실천운동이지만 전 동국인이 한마음이 되어 생활경제 운동 실천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토익특강 7일까지 접수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종훈·사복2 이하 학복위)는 오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방중 토익특강을 실시한다.

수강신청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학복위 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수강료는 기초반 3만원, 실전반 10만원이다.

토익특강의 강사는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토익점입강사 송효섭씨이고, 강의시간은 기초반=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실전반=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이며, 장소는 진흥관 B301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익특강에 대해 학복위 위원장은 "방중사업이긴 하지만 위원장직을 위임받은 후 처음하는 사업이기에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 불교 신행수기 시상식 가져 '나의 단주' 대상 차지

불교학생회(회장=이임철·자연과학부2)는 지난달 11일 정각원에서 '제2회 전국 대학생 불교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행수기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45편이 접수됐고, 심사위원으로는 김병기 부총장(불교학생회 지도교수), 도업스님(정각원 원장), 성형스님(불국사 포교국장), 이봉춘(불문대 불교학)교수, 객근(인문대 국어국문학)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신행수기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상(총장상 상금 50만원)=양명경(계명대 사회과학부1) △부총장상(상금 30만원)=이태호(본교 국어국문학부3) △정각원장상(상금 20만원)=김남현(본교 관광경영학부2) △불국사 주지상(상금 30만원)=김기선(본교 한의예과2) 등이었다.

이외 임혜진(동아대 고미사4), 이미자(우석대 국어국문학부3)와 3명이 입상했고, 부상으로는 도서상품권이 주어졌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신행수기 2회 수상작 '인연 나누기 2집'을 증정했다.

시상식과 관련해 불교학생회 이임철회장은 "시행초기라 공모전 홍보와 대외적인 입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나이지는 모습을 보니 근시일내에 명실상부한 전국 대학생 신행수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직원노조 송년의 밤' 열려

직원노조(위원장=이성기)는 지난달 26일 교내 교직원 식당에서 '직원노조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의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직원노조측은 "매년 호텔에서 해오던 행사이지만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올해는 조촐하게 치르는데 조함인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노조는 "동국인 생활경제 운동"과 관련해 지난 16일 집행부 간부 중심으로 유인물을 배포했다.

한편,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병상에 있는 임상록 계장 되기 전 동국인 모금활동의 결과 3

백 66만 5천원의 성금이 모아졌으며 지난달 2일 임상록계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캠 노동조합(위원장=김창욱)에서도 임상록 계장의 패유를 위해 모은 성금 2백 34만을 지난달 22일 전달했다.

또한, 임상록 계장은 지난달 8일자로 1계급 특진한 과장서리로 승진됐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한 관계자는 "공무중에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인 임상록 계장의 이번 특별진급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패유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학군단, 1년차 22명 군사학교 참가

학군단(단장=손준수·중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제38기 학사장교 1년차 22명을 대상으로 서울 성남에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입교할 예정이다.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는 학사장교 1년차들에게 군사기초 훈련, 기초사상, 군내예절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참석하는 것은 학사장교에 첫발을 내딛는 1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행사이다"라고 말했다.

### '동국인의 밤' ... 동문참여 저조

'제4회 동국인의 밤'이 1백 20여명의 동문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학생회관 1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동창회장 인사말 △부총장 격려사 △축사 △민찬 및 여흥 △경품추첨 △폐회 순으로 치러졌으며, 지금까지 호텔에서 치러졌던 동창회 모임이 교내 식당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덕수 동창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모교에서 조촐하게 연회를 베풀게된 만큼, 동문들도 마음가짐을 다져잡고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병기 부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동문회에 많은 동문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가 여러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총동창회를 대표해 참석한 지창영 총동창회 사무국장은 "국적이 바뀌어도 학적은 못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모교와 동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동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동창회와 관련해 김덕수 동창회장은 "날씨도 흐리고 연말 모임이 겹쳐 참석한 동문들이 적었지만, 학교에서 처음으로 동창회가 열린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다음번에는 모든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중축공사 무기한 연기

경주병원(원장=서정숙·일반의과) 중축공사 완공일이 담담업체인 서광건설의 부도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서광건설의 부도는 지난달 20일에 발생했으며, 당일까지의 중축율은 90%였다.

현재 중축공사는 모두 정지된 상태이며, 경주병원측은 부도가 난 서광건설을 비롯한 하청업체들과 공사 마무리 상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된 완공일은 이행할 수 없게 됐으며, 완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 '황성숲의 생태문화적 가치' 12일 세미나 개최 일반인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될듯

지역정책연구소(소장=임배근·경제학)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경주상공회의소에서 '황성숲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 및 세부사항을 보면 △황성공원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의미 △이영경(조경학)교수 △황성공원의 이용현황과 활용방안=오영석(법정학부)교수 △황성공원의 공익적 가치평가=이충기(관광경영학부)교수 등이다.

주제발표가 있는 후에는 본교 안

재호(역사철학부)교수, 경주대 황정환(관광조경학부)교수, 경주시 김상진 문화관광국장, 경북대 한상열(임학)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이영경교수는 "황성공원의 실내체육관 건립이 가져올 이익 이외에 황성숲 자체의 가치를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로 나누어 일반인에게 보다 쉽게 인식시켜 주는데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98년도 졸업생 오는 27일 앨범 지급

졸업준비위원회(부위원장=송은경·회계) 이하 졸업위는 졸업앨범을 오는 27일(졸업 당일) 졸업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앨범대금은 한의대 졸업생들과 앨범비 환부를 요구한 5명을 제외한 1천 4백 55명이 4학년 2학기 등록금과 함께 지급한 상태이다.

한의대 졸업생의 경우 지난해 앨범과 동일한 형태로 5만 6천 9백원의 앨범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범지급과 관련해 졸업위측은 "졸업식 당일 앨범을 받지 못할 경우 졸업식 후에도 졸업위 사무실로 방문하면 앨범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도서관 방중 개관시간 안내

'97학년도 동계방학중 단축근무로 인해 개관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1. 기간 : '97. 12. 22 - '98. 2. 20
  - 가. 개관시간 : 오전 09 : 00 - 오후 14 : 50
  - 나. 대 상 : 일반도서실, 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실, 의학도서실, 한의학도서실
- ※일반열람실은 종전 (오전 06 : 00 - 오후 23 : 50)과 같음
2. 기타사항
  - 가. 도서관 출입시 학생증 제시(외부인 출입통제)
  - 나. 휴학자 및 복학예정자는 휴학 증명서를 구비하여 일반도서실 (지하 1층)에서 특별 열람증을 발급받아 이용바람

도서관장

### 학적업무 일정안내

'98학년도 제1학기 학적업무 처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관련사항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청기간 및 대상
  1. 복학·재입학 : '98. 2, 23(월) - 2, 25(수)
  2. 일 반 휴 학 : '98. 3, 4(수) - 3, 6(금)
  3. 전부(과)·복수전공 : '98. 3, 2(월) - 3, 3(화)
  - 1)전부(과) 대상자  
\* '98학년도 2학년 1학기 복학생중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전부(과) 희망자.
  - 2)복수전공 대상자  
\* '98학년도 3학년 1학기 복학생중 복수전공 이수 희망자  
\* '97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시 복수전공 미신청자
  4. 조기졸업 : '98. 3, 9(월) - 3, 11(수)  
\* 대상자 : 7학기 등록자(4학년 1학기)로서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희망자
- 접수처 : 교무처 학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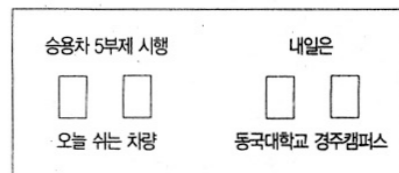
교무처장

### 5부제 실시 및 출근버스 운행조정 안내

1. 승용차 5부제 운행
- 가. 취지 :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 함으로써 절약 생활화 한다.
- 나. 방안 : 개인 승용차 5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동참

해당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해당차량	1, 6	2, 7	3, 8	4, 9	5, 0	차량 끝번호

- 다. 실시기간 : '97. 12. 22(월)부터
- 라. 안내 표지 설치
- \* 장소 : 정문 입구
- \* 모형



2. 경주시내 출근버스 경유지 확대 및 운행조정
- 가. 취지 : 승용차 5부제 운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유지 확대
- 나. 운행시기 : '97. 12. 15(월)부터
- 다. 운행시간 및 경유지

구 분	경 유 지 및 시 간						
	교직원 아파트 (08:25)	경주역 (08:30)	팔우정 로타리 (08:32)	시암양 (08:35)	시외버스 터미널 (08:37)	상인동 (08:40)	학교 (08:45)
현 행 (시 간)							
변 경 (시 간)	상인동 주유소-오일행크 (08:10)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08:15)	팔우정 로타리 경주주유소 (08:21)	경주역 파출소 (08:22)	교직원 아파트 (08:26)	계림중점 (08:32)	공정리 상생아파트 (08:3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도, 입시관계를 19일까지 부분휴관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과)은 '98학년도 신입생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채점 및 대조작업 관계로 구랍 22일부터 오는 1월 19일까지 1층 열람실을 부분 휴관한다.

한편, 도서관 2층의 일반대출실, 과제도서관, 불교학 자료실과 3층의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학위논문실 등은 오는 2월 20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개관하며 토요일은 휴관한다.

이와관련해 조봉주 열람계장은 "입시관계로 1층 열람실을 휴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을 학생들은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신입생 모의토익시험

다음달 20일 교내 강의실에서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오는 2월 20일 '98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토익시험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시사영어사(YBM)에서 출제한 문제로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등의 각 강의실에서 치러지며 시험실적은 3월중에 개별통보 된다.

한편,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다음달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표·전달된다.

모의토익시험과 관련해 김혁배 취업계장은 "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입생들의 영어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야구부 신입감독 한대화동문 선수 실력향상 기대

체육부(부장=정창현)는 오늘(1일)자로 본교 야구부 신입감독에 본교 체육교육과 동문인 한대화(83졸)씨를 임명했다.

현재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황동훈 감독 후임으로 임명된 한대화씨는 지난 83년부터 작년까지 OB, 해태, LG, 쌍방울 등에서 프로선수생활을 했으며, 지난 97년 9월 은퇴했다.

신입감독에 대해 체육부 조정진 계장은 "프로선수시절의 명성만큼 본교 선수들을 잘 지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학 당선자 구준서·이미성조 사퇴

“신임없는 학생회는 사상누각” ... 3월까지 비대위 체제로

제30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됐던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3)조가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선진·수교3 사범대 학생회장 이하 비대위)가 꾸러졌다.

구준서·이미성조는 "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수 조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병재·철4이하 비대위)의 권한임을 인정하지만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

다"고 밝히고 또한 "중선위가 이미 당선을 인정했지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운본)는 사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선위는 지난 12월 1일 밝힌 선거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이미 내린 당선 결정을 철회할 수 없고, 30대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중선위의 개표진행 과정상, 그리고 유권 해석상의 잘못이지 선운본측과 당선자들의 잘못이거나 중선위와 선운본의 야합은 아니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구준서·이미성조는 "중요한 것은 누가 학생회 대표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의 성실한 자세와 실천으로 올바른 학생회, 학우들 속에 인정받는 총학생회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신임 단과대학총학생회장단은 제30대 총학생회 비대위 구성에 관한 논의를 총학생회실에서 구랍 15.17.22일 세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자리에서는 총학생회장, 총어

학생회장선거가 각 후보자측의 사퇴와 당선무효인정으로 인해 이를 대신할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과 그 구성체계, 비대위 위원장 선출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비대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실질적으로 내년 3월 선거까지 총학생회를 운영할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올해 총학생회 전반의 사업을 계획하고 3월까지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건설 무산

중선위에 의혹 해명 요구 ... 3월 보궐선거 실시

제13대 총학생회가 지난 12월 4일 자진사퇴했다.

제13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8일부터 3일동안 치러진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시간 연장장과 선거인명부 수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병재·철4 이하 중선위)에 의혹을 제기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이러 총학생회측에서는 지난 12월 2일 사과대 학생회(회장=이왕재·사회4) 및 기타 소모임들과 공청회를 개최, 중선위에 대한 불신

임을 표명하고 이어 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현재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방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13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당선·사퇴한 이경원(철3)양은 "학생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외국어교육원 특강 실시

29일부터 선착순 접수 ... 5일부터 1차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매·영문학과)은 '97학년도 동계방학을 맞이해 외국어특강을 실시한다.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1차(09:00-11:00, 11:00-13:00 2개 타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2차(09:00-10:30, 10:40-12:10 2개 타임)로 나눠 외국어특강을 실시한다. 접수는 12월 29일부터 선착순 마감하면, 외국어교육원(동국관 1동 2층)에서 받고 있다.

강좌 및 수강료는 다음과 같다. △Intermediate-5만원 △Higher Intermediate-5만원 △Advanced-5만원 △English Composition-4만원 △TOEIC-3만원 △Listening-3만원 이번 특강은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감안할 때 학생들의 관심과 참

여가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각원, 신년 법회 및 시무식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5일 '98년 신년 맞이 법회와 시무식'을 대각전에서 개최한다.

법회 및 시무식은 △예불 △축원 △심경공덕 △이사장님 법어 △사홍서원 △시무식으로 진행되며 이법산 정각원장은 "이사장님 및 본교 임직원과 동국학원 산하 중·고등학교 교직원 2백여명이 참석하는 신년 첫 법회니만큼 전 동국인이 새해 각오와 소망을 담은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무처 전과원서 접수

복학생·재입학생은 다음달 17일부터 3일간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 교무과는 전과 원서접수를 올해 2학년 복학(재입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단과 교학과에서 받는다.

재학중인 2학년 진급예정자들은 지난달 15일 원서접수를 끝냈으며, 전과 희망자들은 2월 26일 전형을 거쳐 오는 3월 3일 전과허가가 확정·공고된다.

구비서류로 전과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

이수 계획서가 필요하며 1학년과정 수료한 총학생적의 평균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과원인은 계열·학부(과)의 입학정원 20%로 한정하고 △경험정확과목의 전과 △패캠시간 △야간에서 주간 △한외과·의약(예)과로 지원이 제한된다.

전형시 일반계열은 1학년 평점 평균(1백%)과 면접이 평가기준이 되며, 예·체능계열은 실기가 추가 된다.



우리과로 오세요...

예비 선배와 따뜻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시인은 지난달 29일 원서 접수 기간 학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선배들과 예비 98학번간의 정담을 나누는 모습. 오인택 기자

학림관 소강당 공사 마무리

계산관앞 계단도 교체·보수

관리처(처장=김종욱) 시설과는 학림관 지하 소강당 개·보수공사를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해 학생들에게 소강당을 개방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이번 공사로 소강당의 벽 바닥, 천장, 의자 등이 대폭 개·보수 됐으며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도 설치됐다. 또한 소강당 무대가 넓어졌으며 2백6개의 좌석이 마련됐다.

한편, 같은 기간 계산관 옆 계단 및 바다도 각각 대리석과 타일로 교체·보수됐다.

국어국문학부 과소개지 발간 학과 홍보 효과 기대

국어국문학부는 구랍 29일 학과 소개 및 입시요강등이 담긴 과 소개지를 발간했다.

국내 유일 학과 소개지로 알려진 국문학부 소개지는 "그들의 말과 글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고등학교와 원서 접수자, 학내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국문학과 관계자는 "본 소개지는 학과 전통을 알리려고 현재 한국어문학부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발간취지를 밝히고 "이 소개지로 본교 학생들은 국문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입시에서는 좋은 학생들이 지원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회전무대

동약 IMF???

O... "여기서도 IMF! 저기서도 IMF!" 은나라가 IMF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동약에도 예외없이 IMF(?)한파가 몰아쳤는데.

동약의 IMF는 다름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F학점을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연구실을 드나들면서 일어난 것.

실적적인 기간동안 학생들은 그야말로 '인간'을 썼다는 후문.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평소에 걱정 좀 해볼 것이지, 아이 엠 예프 라니~"

개방열풍

O... "자~. 애들도 와. 어른도 와. 모두 와~!!"

동계휴가 중에는 도서관 출입이 학생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이유인즉 학생들 검색기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기 때문.

이로 인해 도서관 출입시 번거로움은 줄었지만 '잡 사탕(?)' 이 출입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IMF 시대에는 도서관도 자율개방(?) 하나요?"

시대유감!

O... 이것이 구르는 재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사용(?)으로도 쓰이는구만.

무슨말이고 하니, 다른 종이컵이 발에 차여 이쪽저쪽 굴러다니더니 이제는 도서관 4층 휴게실 창틀에 일렬로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두어도 창틀에 올려 놓은건 무슨 이유인지? 이에 회전무대자 알 "나라가 새롭게 바뀌니 쓰레기 버리는 방법까지 가지각색이군!"

절약?

O... 진흥관 수위실 옆에는 하루에 두 번 정확하게 맞는 시계가 있다는데.

이유인즉, 진흥관 수위실 옆에 몇 달전부터 5시 50분을 가리키는 과중 시계가 방치돼 있다고.

하루에 정확하게 두 번 맞는 이 시계는 학우들에게 정확하게 외면당하기도.

이에 억울한 시계도 한마디 하길 "IMF시대에 나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몇 달째 이리하고 있는 거랍니다"

한

달 월 금 백 만원으 로 알들 살들 집 사 고 차 사려던 노력 이 허망하기 만 합니다.

IMF 협상으로 경제침체가 되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더군요. 미국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내주는 IMF 협상을 맺고서도 서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면 된다니요! 서민은 억울합니다!

I'M F'ired

제국의 을사조약 IMF 협상

맺은 김영삼 사법처리!

IMF 등에 업고 경제주권 침탈하는 미국 반대!



민족동국 30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철장문을 열어

제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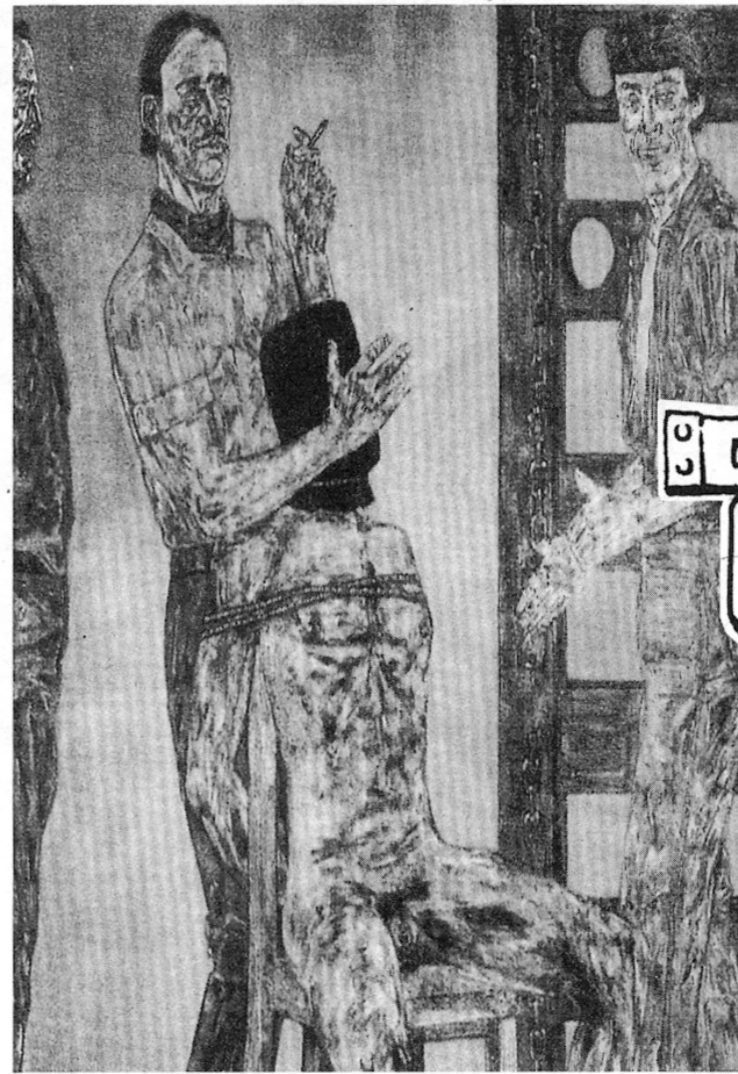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636명(민간인 63명, 97년 12월 1일 기준). 이중 73.7%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의 제일 좋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는 양심수들이 하루 빨리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친구 동지들을 잊지 맙시다.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전·노 사면 철폐!



민족동국 30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권교체와 대통령 당선자의 책무

50년만의 정권교체 민주주의의 일대전진 의미

넓은 재벌경제·정치사회적 제도 제거...원칙윤리 수반한 정치기대

50년만에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진 이번 정권교체는 그간 험난했던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정치적 대사건이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일대 전진이기 때문이다.

그간 야당필패의 역사 속에서 패자는 불행한 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붉은 용'의 자로 꺾박받고 체제 밖으로 내몰려 회색지대에 살아야 했다. 이제 정권교체는 패자가 '붉은' 죄인으로 꺾박받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였고, 야당이 명실공히 체제 내의 정치동반자로 대우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정치가 정착할 수 있는 새 역사를 개창하였다.

우리의 정권교체는 국제적으로도 자랑찬 것이다. 한국의 정권교체는 동북아 최초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아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의 지성들은 한국의 극심한 경제위기에 대해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부러워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구의 지성들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보고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확신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는 경제사회의 심층적 변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필패의 신화가 깨진 것은 대마불사의 경제신화가 깨진 경제변동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영남재벌 중심의 계급차별적 성장체제와 이를 조절하던 정치사회 제도의 지역차별적, 가부장적 통제기제 전반에 대한 총식 선언인 동시에 그것은 경제, 정치, 사회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행위유형과 새로운 행위패턴을 창출하는 출발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넓은 재벌경제 체제와 정치사회적 제도를 제거해야 할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각종 차별을 완화한 21세기의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할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우리는 다음 정부가 이 책무를 수행할 독창적 정책과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21세기의 새로운 다양성의 시대에 가장 걸맞는 정책과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 왔다. 우리는 이 중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공약, 민주적 시장경제 공약, 각종 인간차별을 없애려는 3공법 공약에 주목한다. 아울러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이 공약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여당필패의 신화는 정치적 책임의 실종을 초래했다. 정치영역에서 책임은 동기의 진실성과 관련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늘 정치적 원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정치 권력은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치미때는 거짓(기밀엄수), 살인과 싸움(사형과 선전포고), 도둑질(정보활동)을 명령해야 한다. 정치는 본래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해사라면 사치미때는 거짓(기밀엄수), 살인과 싸움(사형과 선전포고), 도둑질(정보활동)을 명령해야 한다. 정치는 본래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해사라면 사치미때는 거짓(기밀엄수), 살인과 싸움(사형과 선전포고), 도둑질(정보활동)을 명령해야 한다.

정치는 결과와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행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정

시사논단



황대연

시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치는 언제나 성공적으로 행위할 능력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미칠 것 밖의 결과와 파장에 대한 분별력, 즉 좌우와 앞뒤를 잘살피는 목적(目標)과 통찰력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신정부 관계자들이 도덕적 냉소주의나 결과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도덕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치적 '원칙윤리'에 따라야 한다. 이 '원칙윤리'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인권, 안전과 복지에 대한 책임 원리이다. 신정부는 주어진 권력으로 이 원칙을 증진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를 가져서는 안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 목표 수행에는 행위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국민은 신정부를 성원하고 기대하고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실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IMF"

선심뒤엔 고통스런 희생... 채무국 무시한 융자조건 안될 말

2차대전의 끔찍한 파괴를 목격한 연합국측 지도자들은 전후의 세계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비록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1944년 7월, Bretton Woods에서 연합국측 44개국 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가 창설되었다.

이렇게 창설된 IMF는 가입국이 국제무역과 금융에 있어서 일련의 합의된 이행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독(overseeing)하는 기능과 가입국이 일시적 국제수지곤란 상태에 직면했을 때 차용권의(borrowing facilities)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1947년 3월 1일 문을 열게 되었다.

30개국의 회원으로 출발한 이 기금은 현재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회원으로 되어 181개국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기구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5일 가입하였다.

을 차지하고 일본과 독일이 각각 5.67%, 한국은 0.55%의 비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분 배율은 의사결정시 투표권과 차입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금을 구성하는 Quota가 배분되면 가입국은 25%를 금(gold)으로 납입하고(지금은 SDR의 Quota 증가 혹은 IMF에서 선정된 일정한 통화로서도 납입)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하게 되어 있다.

한편, 기금으로부터 각국은 3~5년의 범위내에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데 Quota의 25% 범위내에서는 조건없이 자유롭게 대부받을 수 있다. 나머지 75%는 Credit tranche라고 하여 이 부분은 신용공여 크기에 따라 이자율이 높아지고 감독과 조건이 까다롭게 된다. 만약 기금이 한 나라의 통화를 75% 이하로 갖게 되면 그 차액은 super gold tranche를 합한 금액이 일국의 보유준비금(금, 외환)과 더불어 일국의 국제지불준비금을 구성하게 된다.

기본 Quota로서는 증가하는 세계유동성 필요에 한계성을 느껴, 1967년 12월 SDR(특별인출권)이라는 국제유동성단위를 창출하여 기본 Quota를 배분하였다. 지금(paper gold)이라고도 불리는 SDR은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중앙은행간 거래에 사용되는 장부상의 계산단위로서, 배분된 Quota보다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면 이



자가 부과된다. 이는 국제수지 적자 혹은 흑자에 의한 SDR변화를 억제하여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외에도 1962년의 GAB(일반차입협정), Stand-by-arrangements(대기성협정), Super-arrangements(자국통화교환협정), CFF(확대자금금융), SAF(구조조정자금), ESAF(확대구조조정자금), CCFE(긴급지원 금융자금), BSFF(완충재고금융), EFM(긴급금융메카니즘)등의 확대 발전을 거치면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금공여의 노력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제공 이전에는 상황을 보장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IMF융자조건(conditionality)이라고 부른다. 융자. 수혜국은 수출을 자극하고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지출감소, 화폐공급을 감소, 임금인상통제 등을 요구하고, 거의 자급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축소를 요구하여 해당국은 고통스런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 때때로 이러한 채무국의 사회적 요구, 정치적 결과를 전면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IMF에 대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채대석  
상경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설

능동적으로 새해맞자

정추년을 보내고 이제 무인 새해를 맞이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총체적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끝내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던 고난의 시기였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욱 더 심화될 따름이다. 그들의 지원을 받는 대신 가혹하리만큼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대량실업, 불경기, 고물가, 저성장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소위 '구조조정'에 수반된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는 대학사회에도 여지없이 밀어닥치고 있다. 등록금 등 재정수입의 감소와 그에 따른 연구 교육에 대한 투자의 축소로 그간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벌려온 외형적인 성장이 더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당연히 모든 대학이 화내 각 분야의 소비절약운동 등 내부조정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물론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고도 등록금과 임금을 동결하여 이 사태에 일차 대처했으며, 계속해서 다각적인 소비절약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학내의 구조

조정을 통한 낭비요소의 발본색원을 단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의지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낭비요소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파악이 필수이다. 즉 우리의 일상적 실천을 통한 절약운동의 범위를 넘어 학교 생활시스템 전반에 대해 인식하는 철학적 바탕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절약에만 매달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본교의 생존전략과 발전방향에 적합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해 전부터 교육환경의 변화추세를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을 이미 세워 놓았다. 그 기본 방향은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수월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3년동안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동국은 강한 체질로 개선되었으며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년벽두 동국인들은 위축되지 말자. 우리는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국민대화합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를 꺾은 표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를 지켜보았던 유권자들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국민적 열망달성을 축하하며, 50여년동안 지속했던 부패정치체제의 쇠신을 기대했다.

김대에 부응해 김대중 당선자는 당수로서의 면모를 뒤로한 채 바로 국정운영에 뛰어 들었다.

먼저, 대국민 화합이라는 명목아래 역사적 죄인인 전·노씨를 사면 복권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어지럽기까지 하다. 대화합은 수긍하지만 처참히 피흘렸던 민주화의 넋들에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양심수를 제쳐놓은 채 전·노씨의 사면을 최초로 단행한 것은 선사가 뒤바뀐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동서화합과 계급, 출신의 화합을 위해 그보다 훨씬 상위에 위치한 인간과 인권의 화합을 끌어내린 처사라는 비판이다.

대선 전 우리는 여러 후보들의 공약에 귀를 기울였다. 그 중 김대중 당선자만이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설치 등의 정책적 제시와 함께

양심수를 포함한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의 의지에 호응하거나 이를 지지한 국민들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철폐이다. 보안법은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물론 형식적인 면조차 인간의 정신적 사상을 침해하고 옥죄는 반인권적 악법일 뿐 아니라 그 형벌 또한 매우 가혹하다. 이는 민주화의 요구에 실로 위배스러운 것이다.

다음으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해야만 한다. 민주화의 요구와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다 구속된 수많은 양심수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모체가 되는 사상과 양심이 존재할 터이다. 이를 길한줄, 말한마디로 바꾸려는 것은 억지이다.

마지막으로 국보법으로 수감된 수많은 양심수들을 사면하고 복권해야 하며, 그들의 실추된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다. 반드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의 제시와 실현에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KEUMKANG CHEMICAL CO.,LTD. KOREA CHEMICAL CO.,LTD. KEUMKANG CONSTRUCTION CO.,LTD.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끝없이 도전한다!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생각으로는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한 한국 핸드볼처럼, 40여년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으로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온 KCC-건축자재의 대명사인 금강, 세계적 도로 업체로 성장한 고려화학, 환경주의로 건설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금강종합건설까지 KCC는 남다른 미래 도전정신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주)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동약로



F학점

지난 12월 24일, 거리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과 빌딩 주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알리는 화려한 트리로 축제분위기를 방불케하고 있다. 경제적 한파로 풍상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대학가 근처 술집들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붐비고 밤새 영업을 하며 젊은이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었다. 그중 C호프에서는 부유층 자제로 보이는 대학생들이 양주를 마시며 "우리 오늘 밤새도록 마셔보자", "2차는 나이트 클럽 O.K.",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주 향수샐러,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신정연후에 스키나 타러가자"라는 대화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IMF, IMF하는데 IMF가 뭐의 약자냐?며 사회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TV와 신문지면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국가의 경제실태가 땅에 떨어졌다고 보도하는데도 흥청망청 돈을 쓰는 대학생들이 즐비한 것이다. 한편, 아버지들은 "감원일종으로 인해 목이 달아날지 몰라", "우리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어"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편 호프집 한쪽에서는 "나 이번방학에 막노동 뛰어야지", "난 벌써 아르바이트 뛰었는데 청소대행업체야. 근대 힘들긴 해도 학비는 낼 수 있을 정도야"라며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IMF와의 약속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노사정합의다해서 각계각층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대학생들이 앞장서 '경제를 살리자'는 노력은 아직도 조족지혈(鳥足之血)일 뿐이다. "IMF=I AM F"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서는 바로 F학점이다. 우리 지력만으로는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할 때, 과소비로 얼룩진 모습보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오인택 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총체적 경제위기 극복 급선무

넓은 관행 버리고 21세기 비전 부합하는 정책 지향해야

건국 이후 50년만에 국민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로써 여야간 정권을 교체했다. 그동안 제 16대 대선은 정권을 사실상 승계해 온 특정의 기득권 정치세력을 국정에서 손 떼게 했고, 이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게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달성한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감정에 앞서 무거운 책무가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의 국정실패로 국가부도라는 국난이 초래되었다. 오늘의 총체적 경제위기는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 간에 그동안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가능했던 대기업들의 방만한 투자와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동반부실화를 초래한 한국의 대외신뢰를 추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산업과 금융을 분리시켜서 금융이 기업투자를 심사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정경유착의 청산을 위해 서라도 국제통화기금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부와 IMF 간의 협력을 준수함으로써 추락한 한국의 대외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IMF협약은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분명한 구조조정과 시장경제로의 절대적 개방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는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자구노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당면 경제난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IMF로부터 경제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도 우리경제가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IMF 구제금융 요구의 한파를 가장 실감케 하는 대목이 바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란 점이다. 구제금융의 제공을 계기로 강도높은 긴축정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장 대량실업 사태가 눈앞에 닥치게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대로 3%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해도 실업자는 80-90만명에 달하고, 만약 성장률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실업자수는 1백만명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대량 실업시대는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다. 게다가 여기엔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전제된다. 여기서 실업의 고통은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의 유연화에 따른 실업증대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보합사업을 통해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새 정부는 국제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작업과 금융개혁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처리하여 대내외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안정과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MF체제로 상징되는 현재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더욱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사회계약의 선언할 필요가 있다. 당선자의 첫 과제는 국민통합에 최우선을 둘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국난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미증유의 위기인 데다, 21세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행동하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선자는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내외 신뢰회복 조치를 실천에 옮기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정부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상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자초한 국가경제 붕괴의 한가운데에는 잘못된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체제와 행정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개혁의 기본은 작은 정부가 필수조건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IMF체제 하에서 대내외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데 정부개혁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오직 실천만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국난을 극복할 수 없고, 21세기로 나가는 세계화의 대열에서 나오겠다는 인식이다. 오늘의 경제난국은 어느 의미에서 21세기의 강력한 한국을 키워내기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갈 좋은 기회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당면한 21세기의 비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새 시대는 이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요구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통해왔던 넓은 관행과 사고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편 북한도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

해 IMF의 문을 두드릴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될 때 남북한 모두 IMF의 지도를 받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경제적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그 목표는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태동시키는 방향일 것이다. IMF체제 하에서 이 목표의 달성은 역설적이지만 남북한 간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도리어 가능하게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긴축을 하자면 무엇보다 과감히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열어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전체예산의 20%가 넘는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을 소홀히 하지는 것은 이니지만 IMF체제 하에서 남북한이 다 함께 군비를 축소해 재정압박을 해소해야 한다. 김대중, 당선자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해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의 국가정책의 수립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의 정권교체 없이 수십년을 지내오는 동안 지역간, 계층간 차별이 누적 심화되어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지키는 데 매우 집요했으며, 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편협하고 지역감정을 부추켜 왔다. 남북의 민족문제, 지역, 계층, 남녀, 도농 등에 깊게 파인 골을 매우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민통합에 앞장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할 때러야만 당면한 경제위기도 함께 넘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국민의 단합을 가락하고 있는 지난 정권들의 차별정책을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것은 권력사회의 지역분열을 불러 올 것이며, 또 사회적 동요를 수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의 권력기반의 취약과 기득권층의 지향에서 오는 혼란은 국민 모두의 지지로 저지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정권교체가 기득권세력의 패배이며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개혁작업에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진철 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MF시대와 대학생

지성인으로서 국난극복 앞장서자

'정축극치'의 1997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온 국민은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벌써 몇번째 매는 허리띠인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그 심각성이 부각될 때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심각한 시기에 IMF통치시대, 과연 나는 이 시대의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은 기금적 삼가하자. 계속되는 취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관문으로 여겨지는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이 외화지출의 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영어를 익히기 위한 목적이려면 대신 본교의 외국어교육원, 학생복지위원회, 컴퓨터교육원 등에서 오는 5일부터 일제히 실시하는 단기강좌나 컴퓨터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실제로 본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교육은 일반학원 수강료의 6분의 1 수준으로 가격도 저렴할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면에서도 일반 학원과 비교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아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둘째, 이제는 바로 뛰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자. 급격한 경제난으로 과외나 써빙과 같은 비교적 쉽고 편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요즘과 같이 자금 유동이 잘 안될때는 조금은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맘풀리며 돈의 가치를 아는 아르바이트가 더 나을 것이다. 최근에 대학생들이 기피했던 3D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예일 것이다. 셋째, 대학생이 앞장서서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여주자. 이것은 대학생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실천하지 않는 문제이다. 대학생 대다수는 용돈의 대부분을 유희비로 탕진한다. 술, 담배, 당구, 영화, 노래, 춤 등을 즐기면서 쓰는 돈을 조금씩만 줄이고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연인을 만날 때 괜히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대형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도 지성인다운 모습일 것이다. 넷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제브랜드보다는 국산품을 애용하자. 리바이스, 게스, 이스트팩, 아디다스, 나이키, 필라, 케빈클라인과 같은 외제상품은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잠뱅이, 너스, 르카프, 포르토프레스 등은 값도 외제브랜드보다 저렴하고 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담배나 술도 마찬가지이다. 말보로, 단팔, 필립모리스 보다는 디스나 88과 같은 국산 담배를 애용(?)하고 비싼 양주보다는 국산주를 애용(?)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일 것이다. 대학생들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이든지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힌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실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국난을 앞장서서 극복해 왔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이 IMF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민주노총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고용보장 촉구대회 개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배석범·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27일 종로공원에서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고용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와 학생들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는 민주노총 최명아 조직부장의 사회로 △민중의례 △민주노총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의 대회사 △전국연합 양재택 집행위원장의 연대사 △꽃다지 공연 △사투노련 김국진 위원장의 발언 순으로 치러졌다. 민주노총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제파탄의 주범인 재벌을 반드시 해체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 후 노·사·정 3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변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월과 3월중에 노동자와 학생들이 총궐기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동자, 시민, 학생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부의 노동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고조되었나를 상기시켜준 계기였다. 사회부

NEW & BEST HAITAI

언제나 새로운 제품과 최상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해태의 기업외지입니다

“해태꿀로 주세요”



대학생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태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무엇보다 대학생 여러분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50여년을 소비자와 함께 해온 민족기업, 해태. 부모님세대에서 우리 젊은세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어 내려온 사랑을 바탕으로 21세기 초일류 식품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제품과 최상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해태의 기업 의지 NEW & BEST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태제품을 더욱 더 사랑해주세요.

HAITAI

송석구 총장에게 듣는다

송석구 총장의 임기 3년이 흘렀다. 재임기간중 실시했던 90주년 기념사업 및 교육개혁사업들을 총괄해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계획을 알아본다.

# 교육개방 살 길은 '특성화' 뿐

## 한국학·정보통신 분야에 주력... 2개 전공이수 의무등 교육개혁 박차

### "적극·긍정적인 사고로 자기 개발에 힘쓰길"

“재임기간 중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열린음악회를 실시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웠던 일이라면 단연 제3캠퍼스 건립문제였지요. 모든 분들께 약속을 했는데,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총장으로서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총장으로서의 기쁘고 존제까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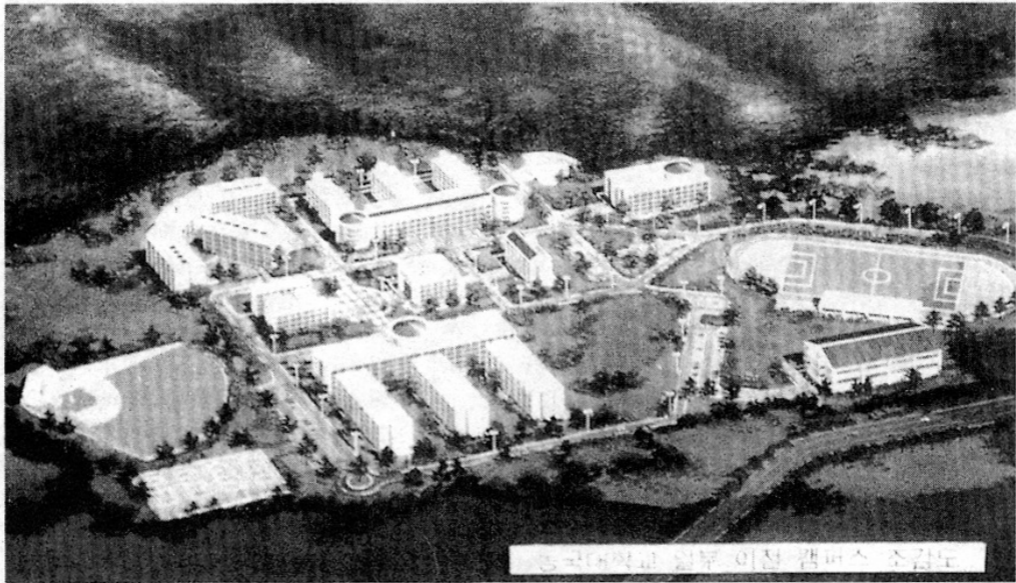


작년에 이어 복수전공, 전과제도, 학부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교육개혁이 최우수 평가를 받는데 이어 올해도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리대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올해 교육개혁은 특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성화의 분야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개혁 우수대학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 덕분입니다. 이에 힘입어 교육시장 개방에 대응한 '특성화'로 개혁을 추진했는데, 첫째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한국학 연구이고 둘째는 정보통신과 응용분야를 포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교분야에서는 불교대 세계 과를 불교학부로 통합했으며 국내외 저명 불교학자를 초빙하는 석좌교수제를 도입, 박사배 교수들 초빙했고 티벳·범어분야까지 교수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은 정보통신분야에서 멀티미디어 연구소 설립, 정보산업대학신설 및 정보통신 전공분야에서 관련학과통합, 그리고 이와 함께 사무자동화된 행정과 인터넷을 이용한 자매대학과의 학점교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 분야에는 경영·경제부문에 특성화를 추구하는 한편 그 밖으로 BSC(Business Solution Center)를 동구관에 설립 확충할 예정입니다. 교육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각 대학들이 교육시장 개방에 살아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보이고 있고 우리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본교는 참사람인증제나 출장임시 등을 국내 최초로 실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교육개혁을 착근(着根)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2개의 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경쟁력을 갖게 하며 학교는 2개 전공 이수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비해 현행 전공이수와 다른 새로운 과학적 커리큘럼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 학생이 담담히 휴가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면학분위기를 위한 쾌적한 환경 또한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사람 인증제는 학교가 학생들을 보충,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대학은 학문탐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취업난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도외시하고 경쟁력을 많이 추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해의 우수대학과 교류협정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매대학과의 현황과 우리가 얻어낸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이미 30개 대학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해외 우수 대학과 학술을 교류하는 그 자체가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제도 역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불교병원, 일산 제3캠퍼스의 기공식이 내년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3캠퍼스 건립의 진행상황과 현재 마련된 재원의 규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정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중에는 불교종합병원 건축허가가 날 것이며, 2월 중엔 일산 제3캠퍼스 건축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나 모든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5월 개교기념일에 기공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임역시 약3백45억이 발전 기금으로 모아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모금활동을 계속 펼쳐갈 예정입니다.

“95년 직선제를 통해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3년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총장님의 사업방식에 대해 진취적이고 추진력있다고 평가되는 반면 너무 독주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말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고 목표를 수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순수하고, 공정하다면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신명을 바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재임기간 가장 인상깊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임기간 중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열린음악회를 실시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일산 제3캠퍼스 조성과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약속을 했는데,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총장으로서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총장으로서의 기쁘고 존제까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 직원, 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나이답게 여자답게 여자답게 주어진 상태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밝은 미소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기성품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생 또한 이 세상속에, 건전한 가치관과 함께 이룬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어디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반드시 있다고 믿으며, 그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발·발전 시켜나가야 하겠습니까.

최정석 기자

### 해외 학술교류 현장을 찾아

## 본교, 일본과 '전통문화비교 연구' 세미나 개최



해외 학술교류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날은 12월 8일. 당시는 IMF와의 협상직후로 추가폭락, 환율상승의 전조가 시작될 때였다. 따라서 다음날 12월 9일 교토의 용곡대학에서 개최되는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 세미나에 대한 취재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취소와 강행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출국할 수 있었다.

본교는 1972년 일본의 고마자와 대학과 최초로 학술교류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의 주요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과거 학술교류협정만 체결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미비했던 것에 비해, 지난 3년간은 교수 및 학생교류, 학술정보교류, 공동연구, 세미나 공동주최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용곡대학교는 역시 본교와 1992년 2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3명씩 각국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대학중의 하나이다.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는 한·일 공동연구조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양국에서 학술세미나를 번갈아 개최하고 3년후 연구가 마무리되는 해에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용곡대학교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가미다시게오 국제불교학 대학원 교수의 '한국불교문화의 특질'에 대한 발표와 본교 송석구 총장의 '한국불교의 화(和)사상'의 기초발전을 시작으로 저녁 6시까지 열세없이 이어졌다. 본교 목장배 교수의 '한국불교 계율사상의 변천', 오형근 교수의 '한국유식학과 그 문화', 이기동 교수의 '한국고대의 토속신앙', 이도업 스님의 '일본화엄의 원류론'의 연구발표와 용곡대학교 구스노키교수의 '일본유식과 서명사상' 후쿠하라교수의 '한국정토교의 특색'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 우리나라에서 전해받은 불교와 문화들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전통문화로 가꾼 일본에 대해 이제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다음날 방문한 오토리 대학은 용곡대학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일본 최대 종파인 정토종의 본사(동)본원사에서 세운 전통 깊은 학교였다. 여기서 양일간 교류학대논의를 통해 교환학생과 견과 공동학술연구를 결정했으며 본교 송석구 총장이 '불교계 대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연을 해 감명을 받았다. 담배공초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이 깨끗한 교정,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먹는 대학생들, 자전거출·퇴근하는 교수·직원·학생,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된 A4용지만한 대자보 등의 모습에서 아시아에 몰아친 IMF를 거슬러가는 경제대국 일본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김기영 기자

### '98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 접수

1. 신청기간: '98. 2. 19(목)~2. 23(일) 3일간
2. 신청자격: '97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6.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하며, 재학기간중 통신으로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2학기)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교 무 처 장**

### 복학·재입학원 접수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98. 2. 16(월)~2. 18(수)
2.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본관3층)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전역자 ①복학원서 1부,
    - ②전역예정자 각서 1부. (소정양식)
- 다. 재입학자-재입학 원서 1부.

**교 무 처 장**

### 98 겨울특강

기간 : 98년 1월 5일~2월 20일  
 접수기간 : 97년 12월 10일~98년 1월 9일까지  
 공개강의 : 1월 5일~1월 7일까지  
 강의료 : 20,000원  
 시간 : 9시~12시 40분

**강 의 시 간 표**

	A305	A303	A304	A306	A307	A207	A205
9시~10시 40분	인박사 토익	임글 테크	시사 신경향 토크	코아 토크	가로 토크		
10시~11시 40분					친구 시스템 토크		
11시~12시 40분	이카데미 토크	다락원 토크	고려원 영어 순해 해럴드	영어 사설		일본어 뱅크	

**열세번째 학생 복지 위원회**

### 국제정보대학원(신설, 마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과	전공
국제해양정책학과	국제해양정책전공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공학계열임)
국제관계학과	국제형상·통상전공

3. 원서교부 및 접수 : '98. 1. 3(토)~1. 12(월)  
 4. 전형일시 : 1998. 1. 17(토) 14:00-  
 5.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 공무원(군·경포함), 정부출연기관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직원등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국제 정보 대학원장**

### 방학중 외국어 특강 (1, 2차)

구분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실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Intermediate	Hihger Intermediate	Advanced				
1차	09:00-11:00	Angelika Gatos (강의실A)	Troy Body (강의실B)	Nicholas Garrison(L206)	Martin Sherrerd(L309)	Dennis Prieto(LabA)	Roy Partain (LabB)
	11:00-13:00	Angelika Gatos (강의실A)	Troy Body (강의실B)	Nicholas Garrison(L206)	Martin Sherrerd(L309)	Dennis Prieto(LabA)	Roy Partain (LabB)
2차	09:00-10:30	Joseph Scho-uweiler(강의실A)	Leon Kaye (강의실B)	Paul Leslie (L206)	Janet Glendenning(L309)	없음	Iren Hanssen (LabA)
	10:40-12:10	Joseph Scho-uweiler(강의실A)	Janet Glendenning(강의실B)	Paul Leslie (L206)	없음	Leon kaye (LabA)	Iren Hanssen (LabA)
수강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1차 : '98. 1. 5-1. 23(3주) / 2차 : '98. 2. 2-2. 27(4주)						
접수처	외국어 교육원(동구관 L동 2층)						
접수기간	'97. 12. 29일부터 선착순 마감						

**외국어 교육원**

# 동대 문학상

## 제2회 동대문학상

### 입상작 발표

#### ◇ 시부문

본상 '믿음은 더욱 깊은 곳에'  
우희정(사범대 국교3)

가작 '푸른잎'  
배재형(문과대 사4)  
'그대생각'  
신현창(인문과학대 국문4)

#### ◇ 소설부문

본상 '본신(焚身)'  
김개영(문과대 국문4)

가작 '거울의 미로'  
지가은(문과대 철3)

#### ◇ 평론부문

본상 입상작 없음

가작 입상작 없음

#### ◇ 심사위원

시부문  
최순열(사범대 국교과 교수·시인)

소설부문  
김용철(소설가·'97년 소설문학상 수상자)

평론부문  
황종연(문과대 국문과 교수·평론가)

동대 학술·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월 20일 오후2시  
본사 총무부에서 실시합니다

## 시부문 본상 수상작

### 믿음은 더욱 깊은 곳에

우희정

물결을 가르기도 힘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바다 밑  
그 질푸르고 고요한 곳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끔씩 느낄 수 밖에 없는  
입과 눈이 퇴화된  
믿음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차갑지만 따스히 마주치는  
한류와 난류처럼  
예정된 물길을 따라 밀려온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날에는  
깊이 모를 암흑의 물 속으로  
더 깊숙히 헤엄쳐 들어가곤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수압 속에 숨을 죽이고  
모래 알갱이처럼 흐르다가  
저 위의 영롱하게 투명한 수초 사이로  
물살을 쫓아 흔들리다가  
다시 일상의 수면으로  
머리를 쳐다쳐 올릴 때,  
햇살은 불에 와 흠어지고  
바람은 얽은 그늘처럼  
이마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사람들에 대한 내 믿음은  
더욱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 시부문 본상 수상소감

### "날 믿는이들에게 감사"



우희정  
사범대 국교3

어린시절, 책을 참 멀리 했었다. 질서정

## 시부문 심사평

### 절제된 시적 기교

### 화려하지 않은 언어 돋보여

무엇을 말하겠다는 의욕이 앞설수록 목소리는 거칠게 되고, 재주껏 얘기하겠다는 꾀를 쓰면 요령만 드러난다. 대상을 해석하는 눈이나 언어를 다루는 솜씨는 바로 시인의 정신적 활력을 말해준다. 습작과정에서 획득한 여러 시적 발성법을 기교로 익히는 일은 제 가락을 찾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다. 매년 그것에 의탁해서는 안된다.

생경하더라도 제 몸짓을 갖추려고 애쓰는 흔적이 배어 있는 작품들이 그리 흔치 않았다. 어디선가 한 번쯤 본듯한 작품들을 가로질러 한두 작품을 고르는 일은 난감했다.

아름이 서린 시선일수록 상투적인 어법

연한 작은 글자들보다는 인형놀이나, 소꿉장난, 문방구에서 팔던 각종 놀이감, 밖에서 뛰어 노는 것 등이 나에게 훨씬 더 흥미로웠다. 아침을 먹으면 나뉘어 어느 집 대문앞에서 '누구야, 놀자!'를 외치고 친구는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니께 혼이 나면서도 반갑게 달려나왔다.

어느 순간부터 글을 읽으며 현실보다 더한 감동을 느꼈던가. 아마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걱정들을 숨길 줄 알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 시를 좋아하게 되긴 하였지만 때론 나도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기도 한다. 시를 복잡하게 멋부리는 부류의 그 무엇쯤으로 규정하기도 하는 삶을, 하지만 대문 앞의 '누구야, 놀자!'를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좋아하며 호시탐탐 심심해 하는 정감어린 모습들. 반가운 느낌들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 틀든 마음, 그 속에 담긴 믿음, 그리고 그 눈빛.

지면 위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나는 참 천천히 걷고 있기에.

그렇게도 느린,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으로는 감동을 자아내긴 어렵다. 일상성의 극복을 위한 안감함도 정밀하지 않으면 사뭇 호들갑스러워질 뿐이다. 시란 위냐에 철저히 사유된 대상의 인식을 고도의 절제된 언어로 능청스럽게 풀어내는 일이 아닌가. 역세고 거친 언어구사가 시적 정서의 고양일 수는 없다.

마침 몇몇의 작품이 차분하게 정제된 언어와 충분히 발휘된 내밀한 정서를 소롯이 담고 있었다. 어떤 정서를 읊든 자기내부를 정지하게 드러내는 태도가 시의 기본이다. 본상으로 뽑은 우희정의 <믿음은 더욱 깊은곳>에 화려하지 않은 언어로 얼마나 신묘한 정서를 형상화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현창의 <그대생각 1>과 배재형의 <푸른잎>은 내밀하게 계산된 정서를 익숙한 솜씨로 빚어내고 있다. 어떤 시적 기교는 이들이 앞서서 듯하지만, 역시 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본상에 버금가는 가작으로 격려하는 바이다.

최순열  
사범대 국교과 교수·시인

## 시부문 가작 수상작

### 푸른 잎

배재형

가랑잎 두 손 곱게 펴서  
햇볕 끝자락을 끌어 내리며 눕는다  
땅 위의 향내들이 내려 앉을 쫘도 된 것이다.  
한동안 천마 곁 제비집처럼 할아버지께서도  
마당 한 쪽에 푸른 잎을 키우셨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아주 오래된 기억이라도 묻어  
그 푸른 잎사귀 작은 상처 틈에다 끼워 두셨을 것이다  
그 후론 잎마다 가는 혈관 어느 곳의 피가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동안  
잘 익은 꿈들도 되살아나진 않았을까  
저녁에 태어난 땅이 아침에 고향이 되지 못해도  
알맞게 데워진 아랫목을 상상하며 익어 가는 찬 거름에는  
누군가의 몫이 있었으리라  
허술한 집 한 채 사방으로 곡소리 띄우며 돌아가도  
갈갈한 주름마다 살아 웃으시며  
마당엔 다시 가랑잎들만 가득하다  
할머니의 세월같이 그러웠을 푸른 줄기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람은 따가운 햇볕 다 가릴 수 없어  
부득이 푸른잎들에만 자상한 유언을 남기셨나 보다.

## 시부문 가작 수상작

### 그대생각 1

신현창

그대 생각 끝에 달려 나간 강둑 주변  
썸바귀며 무우장다리꽃 피었습니다  
저렇게도 지천으로 피고 땅속으로  
그대 같은, 그대 생각 같은 뿌리들을 키웁니다  
썩 뽑아내면 제법 먹음직스런  
먹을 수 있는 뿌리들을 키워 내는 강둑 주변  
노란 꽃들 흔들대며 대낮을  
한껏 환하게 흔들여 놓고  
뿌리 속을 물과 햇볕으로 튼실하게 채워넣습니다  
아나정도 뽑아서 국 같은 것으로  
끓여 내려다 더 딱 찬 뿌리 되라고  
그냥 둥니다 그대 생각 끝에  
달려 나간 강둑 주변  
무우장다리꽃 같은 것들 피어  
밤낮 흔들대며 등북 등북  
익어갈 뿌리  
그대, 그대 생각

제12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소설부문  
본상 수상작

본신(焚身)

소설부문 본상 수상소감

“내 문학열정에 큰 수혈”



김경영  
문과대 국문4

결과적으로 나는 나르시스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 소설쓰기를 시작한 것은 나를 객관화하려는 데에 있었다. 4년여 시를 써도 뚜렷한 성과물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엔 받게 된 상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지친 문학적 열정에 큰 수혈을 한 셈이다. 곧 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변함없는 정진에 약속한다. 한 학기를 열심히 지도해 주신 이상문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最好朋友 李功友, 신촌의 김소자, 바르셀로 후배들, 그리고 나에게 늘 무한한 영감을 주시는 어머니에게 이 행운을 돌린다.

징, 팽과리, 바라 등의 금속성 타악기들이 쇠꼬챙이가 되어 귀에 박힐 듯이 들려왔다. 사람이 불길로 치솟고 있었다. 환한 원을 이루고 있는 중앙에는 각성바지, 육성바지 색색의 옷감들이 휘날렸다. 그 가운데에는 피루성인의 시체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디서 밤을 소리가 들려 왔다. 점점 더 소리가 커지더니 불길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무덤이었다. 그런데, 무덤이 이상했다. 패자 속에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걸친 것이다. 머리에는 대강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허, 이 대강이 누구냐고. 삼각산 제일봉에 무수년간 지어 놓고 목욕산 그늘 아래 비록두던 제갈량이 아니냐. 어허 어허!” 입만 보이던 얼굴이 빛 안으로 들어오자 놀라게도 그 모습은 내가 커닝! 불길 한 번 치솟고 지나가자 내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이리 저리 도깨비불처럼 밤을 덩이 사체 주위를 돌았다. 철렁 철렁 철렁……, 시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퇴각기 버튼을 누른 듯 남자였던 피가 그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일그러진 얼굴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눈앞이 들어가고 코가 바로 서고 입이 들어왔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얼굴. 그는 잊 더뎠다. 발밑 일어선다. 영혼! 영혼이 없었는가!

- 어머 이제 정신이 드나 봐, 이봐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밝아지는 시야, 나는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창 넓은 병실이었다. 창밖에서는 가늘게 빗소리가 들렸다. 벽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점점 희미했던 사람들이 뚜렷이 눈에 들어왔다. 시계가 1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벌써 여러 번 했다. 뭐랄까? 반항하면 혼란을 겪는 시집 들을 보면 황당해 질 때가 있다. 전혀 기억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넓은 1인용 병실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시 기억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런 어이없음 때문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또 무병이 도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정신을 놓

치고 사람 팔방 무기(巫房)를 들고 어머니와 정자씨와 마을 사람들을 해집고 다녔을 것이다. 마을 장정들이 내 거센 힘을 진정시키려 달려들었을 것이고 나는 몸부림치다가 폭 혼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병원으로 호송된 것이 분명했다. 문밖으로 뛰어 나갔던 정자씨가 의사를 앞세우고 들어왔다. - 김영호씨, 이제 정신이 들어요? 자,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내 대답이었다.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 지 그는 아침 신문을 들고 있었다. 하기는 이런 소도시의 의료원에 정신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 도시에 정신과 환자라 해 봤자 나를 비롯해 몇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강릉에는 모 재벌 그룹이 세운 5백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있다. 아무래도 영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 도립 병원은 탐탁치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 이틀이면 웬만한 수술 환자들은 모두 강릉으로 보내 버려서 수술실이 아예 분실로 전용된단다. 영안실만 증축된다든지, 의사의 질이 형편없다든지 등등의 것들. 다행히 내 담당의는 친절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 이 도시에 좌천당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의사라는 직업에는 흥미를 잃어버린지 오랜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서울에서 보내 온 기록 차트를 보면서 내 병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 단정지고 있었다.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것이 제일 속편해요.” 그를 처음 대면했을 때 개넌 말이었다. 그가 눈짓을 하자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뻗뻗하기는 했지만 손을 들어 손가락을 까닥까닥했다. - 좋아요. 그럼 이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 옆에서는 습관처럼 간호사가 맥박과 체온을 재고 있었다. - 다행히 신경 계통은 이상이 없군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지요? 또 환상적 발작이었습니까. 더구나 처음 들어 왔을 때는 전신시 시체처럼 굳어 있었죠.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종종 신경이 마비되면 그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간 먹지 못했던 밥도 든든히 들어 놓고, 어서 기운을 차리도록 하세요. 김 간호사, 맥박은 어떻게? - 맥박, 체온 모두 정상입니다.

- 음, 좋아. 김영호씨 일부러 호수가 보이는 병실을 골랐어요. 비는 오지만, 경치가 좋습니다. 마음의 안정에도 좋을 거예요. - 아, 예~, 감사합니다.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내 병실을 빠져나갔다. 병원 앞에는 꽤 커다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병원의 단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호수와 바닷가가 한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동해 바다와 석호인 영랑호였다. 마침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병원과 호수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기도 했다. 풍광은 그저없이 좋기는 했지만 고교 시절 호수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호수는 이미 4급수로 떨어져서 형편없이 오염된지 오래였다. 물고기들이 때죽음을 당해 수만 마리씩 물 위로 뜨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더구나 언젠가는 호수에 빠져 죽은 부패한 한 여인의 시체가 학교 앞을 떠다니다가 정교생을 경악케 한 적도 있었다. 그후 한 건장한 선배가 그 귀신에게 흘러 알몸이 되어 호숫가를 맴돌았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아 ‘야자를 땡개는’ 녀석들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 지기도 했다. 자전거 통학을 하던 나를 포함한 몇몇 놀들만 빼고 대부분 독서실 붐고 차나 아버지차를 타고 서둘러 귀가를 하곤 했다. 때문에 그 호수는 학생들에게 남반의 대상이기보다는 혐오나 공포의 대상이었음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호수는 색이 흐르는, 요염한 여인처럼 그 아름다움은 쉬 감출 수는 없었다. 4급수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인근의 골프장 농약 때문이어서 물 빛깔은 바디가 보일 정도로 깨끗했다. 호수 주변에는 십여 채의 별장들이 높은 측백나무를 뒤로하고 그림자처럼 이어져 있었고 저쪽 구릉에 위치한 골프장에는 새파란 잔디가 하늘색과 섞인 대로를 이루면서 펼쳐져 있었다. 더욱이 멀리 설악산의 울산 바위와 어우러진 풍광은 왜 이 도시가 휴양 도시로 각광 받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갔다. 저 깨끗함과 아름다움의 이면에 있는 독기를 봐! 끔찍하지 않나? 저 너른 호수엔 아무것도 살지 않는 다구. 세상의 이면도 마찬가지로라면서 영혼은 호수를 끔찍이도 싫어했다. 그러나 나는 호수가 되고 싶었다. 독기를 안으로 삼키는, 그래서 나를 온통 비어 내고 싶었다. 그다지 심하지 않았지만 고교 시절에도 남 몰래 안으로 견뎌야 했던 무병 증세를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제야 알게 된다면 영혼은 내게 무슨 말을 해줄까? 영혼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나는 생각했다는 듯이 정자씨를 찾았다. 마침 그녀는 의사를 마중 나갔다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 정자씨, 제가 몇 시간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죠? - 몇 시간이라니요? 이틀을 꼬박 일어나지 못 했어요. - 이틀? 전에는 이런 혼수상태가 고작 네, 다섯 시간에 불과했다. 그것도 곧 여섯달 전의 일이었다. 다시, 심해지고 있는 걸까? 하기는 이제 체념할 때도 된 것 같다. 어차피 정신 치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우습게도 내게 정신과 치료를 계속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무덤인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고교 시절부터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 살리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며 한사코 의대로 진학하기를 원했다. 점수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게 이과 계통은 영 코드가 맞지 않았다. 들은 척도 안하고 내가 국문과를 선택했을 때는, 어머니는 서둘러 신발을 구하러 다녔다. 그 후가 의의되는 했지만 내 신발을 대신 모가게 하려는 일종의 방심이었다. 정자씨는 세 번째 신발이었다. 전에 있던 신발들은 신명과 교통하지 못했는지 내림굿을 몇 번을 해도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근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말문이 열리는 신발을 얻은 것이다. 그래도 미덥지 않았는지 정신 치료도 병행하게 했다. 실제로, 무병이 악화될 이유는 외부적 요인이 더 컸다. 잠재되어 있던 것이 혼수간의 정신적 충격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것도 한 사람이 죽어 가던 그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의사는 그때의 기억을 짐으로 도려낼 수 있다면 무병이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농담을 건넨 적이 있었다. 요즘이야 느낀 것이지 내 신발을 때려서 어머니의 노력은 집요하고도 오래 되었고 또한 무모한 면도 없지 않았다. 무병의 치유가 정신과 치료로도 가능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현직 무덤이라! 하기는 당신이 18살 되던 해, 친어머니에게서 내림을 받은 이후 일생은 얼마나 때스운 한파였겠는가. 하나 뿐인 자식이 그런 인생을 반복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본신 I

본신 II

소설부문 심사평

자기 상실의 승화

모두 16편의 작품을 읽었다. 한때 대학가를 풍미하던 운동권 이야기나 병영 이야기가 퇴근하고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애정문제, 그밖에 마약, 무속 등 비교적 소재가 다양해진 편이었다. 문장은 대체로 감각적이며 독백체 등 자의식의 표현이 짙은 편이었지만, 이야기의 핵심이 흐려 주제가 무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로 남은 작품은 ‘화등’ ‘귀로’ ‘그곳에서 익사하다’ ‘거울의 미로’ ‘본신’ 등이었는데 ‘화등’은 유려한 문장에 비하여 삼촌과의 불륜관계가 개연성이 결여된 데다 지나치게 위악적이었고(비어의 남용 등), ‘귀로’는 형제간의 갈등구조가 재밌게 제시되었지만 공포같은 느낌으로, ‘그곳에서 익사하다’는 마약을 피우는 주인공이 마약중독 된 동기가 낯설고 청부살인까지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 위 세작품은 선에서 제외되었다. 끝까지 남은 ‘거울의 미로’는 아주 설득력있고 차분한 문장구사력이나 구성조적으로 보아 앞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 가자으로, ‘본신’은 무속에 대한 기본적식이 있는 데다가 무당을 어머니로 둔 주인공이 민주항쟁으로 인한 자기 친구의 본신(焚身)을 목격하는 뒤에 신내림이 심해지고, 결국 그 친구의 신원장에서 또한번의 격렬한 자기상실을 느끼는 고통을 형상화함에 큰 무리가 없어 당선작으로 뽑았다. 모든 응모자에게 주고 싶은 말은 소설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재의 선택, 취재, 문장다듬기, 구성 등 뼈아픈 수련과정과 치열성을 거쳐 비로소 한편의 작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올게요. 그녀는 의무를 걸쳐 입고 병실을 나왔다. 고개를 돌리다가, 보호자 침상에 그녀의 아들이 세근세근 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불이 재쳐진 상태였다. 이불을 바로 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 안은 그리 따뜻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전신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팔에는 포도당 주사가 끼워져 있었다. 기껏해야 뒷 몸을 조금 세울 수 있을 정도였다. 침대 위에 의사가 두고 간 신문이 눈에 띄었다. “고성 산발 3일만에 진화, 해방 이래 최대의 피해”라는 머릿기사사 실렸다. 앙상하게 검은 가시만 남은 숲의 모습을 일면 컬러 사진으로 넣었다. 기억의 실마리를 찾은 듯, 이를 전의 일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올게요. 그녀는 의무를 걸쳐 입고 병실을 나왔다. 고개를 돌리다가, 보호자 침상에 그녀의 아들이 세근세근 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 불이 재쳐진 상태였다. 이불을 바로 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 안은 그리 따뜻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전신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팔에는 포도당 주사가 끼워져 있었다. 기껏해야 뒷 몸을 조금 세울 수 있을 정도였다. 침대 위에 의사가 두고 간 신문이 눈에 띄었다. “고성 산발 3일만에 진화, 해방 이래 최대의 피해”라는 머릿기사사 실렸다. 앙상하게 검은 가시만 남은 숲의 모습을 일면 컬러 사진으로 넣었다. 기억의 실마리를 찾은 듯, 이를 전의 일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깨 장을 보고……. 정자씨는 애를 들쳐업고 시장 입구 약국 앞에서 있었다. 긴 생머리였던 그녀는 요 며칠전 내림굿을 받은 후 쪽을 들었다. 쪽진 머리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했지만 맑고 싱싱한 피부부절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올해 스물 넷, 나보다 한살 위다. 꽃샘 추위로 자났고 4월도 중순으로 치달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겨울 차림이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세상에 혼자 되었다. 대개 무당들의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그녀의 사연도 복잡하다. 고향은 태백이라고 들었다. 이복형제들과 한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자 집을 나왔고, 지방을 돌며 다방 레저를 하다가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가 시대에 들어가지마자 시아버지가 급사하고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시어머니마저 사름시름 앓다가 죽

었다는 것이다. 몸속에 신물이 들어있는 것이 이유가 되었고 더 다가가는 그녀도 죽게 되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혼을 해도 남편을 잡아먹게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아들도 살리고 운명에 순응하는 길은 무덤이 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고 생각 끝에 그녀는 내 어머니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것이다. - 아이를 두고 오지 그랬어요? - 차문을 닫으면서 나는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 애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도 보채는 바람에……. 그녀는 눈길을 둘 때가 마땅찮은 듯 스웨터를 들어 잠들어 있을 아기를 들여다본다. - 그래도 업고 다니기에는 힘이 들텐데, 오늘은 장 볼 것이 그리 많지 않으니 정자씨는 자기 식당에서 기다리세요 어차피 점심을 들어가 하니까요. 대부분 불교사에서 사면 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 아니에요, 그랜드 시장에서 볼게 있었어요. 남자가 혼자라면 값도 높게 받고 좋지 않은 거만……, 그리고 애는 별로 무겁지 않아요. 아직 바람이 찬데……. 할 수 없이, 나는 단골집인 불교사에서 지고 리라든가 초, 향목 따위를 사기로 하고 그녀는 과일이나 야채 등을 사 오기로 했다. 일찌감치 물건을 차에 싣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보니 시장 안 풍경은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듯, 사람들마다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다고 별로 추운 날씨도 아니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마구 뛰놀고 있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마구 뛰놀고 있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마구 뛰놀고 있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마구 뛰놀고 있었다.

김용철  
소설가 '97소설문학상 수상자



### 제12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할 수 없는 내에 비해서 정자씨는 달랐다. 발작 중에도 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져 들 수도 있는 문제였다.

우리는 밥 먹는 것도 있고 바로 차에 올랐다. 왜, 내림을 받았는데 제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할 쯤 그녀는 입을 열었다.

글쎄요, 아마도 수습한 다음에 흔히 있는 후유증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다지 심한 것이 아닐 거예요. 좀 더 기다리면 다 낫을 테니까요. 흔히 신병(神病)은 내림만 받으면 낫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대부분 환자들이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재구매 낸 상상일 뿐이죠. 신병도 일반적인 병처럼 그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유기간은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또 분이 내림 곳을 받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내림을 받더라도…… 그녀의 놀란 듯한 시선이 후시경으로 쫓겨 왔다.

- 그럼, 치유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또렷한 말소리였다.

- 아아니……,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내림을 받은 만신에게 중요한 건 서인(巫俗神)에 대한 믿음이지. 어쨌든 정자씨는 말문이 열린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간신히 위기를 넘긴 나는 후시경으로 그녀를 힐끔 보고는 FM 라디오를 틀었다.

- 대학에서는 그런 것도 배우나요? 무당이나 신병 같은 것?

- TV에서 본 거죠. 아주 우연히. 그리고 보니 나는 꽤 전문가적 해설을 내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TV에서 보았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나에게 무병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와 나만이 알고 있었다. 정신과를 들락거려다 보면 상상이 되는 대담이었다. 나는 일부러 '이주, 우연히'에 힘을 넣었다.

- 아, 예……, 그녀는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아기는 그새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었다. 12시 "정오의 희망곡"이라는 지방 방송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예 고성군 구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20m의 강풍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 온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 산불이 크게 번질 법도 했다. 벌써 2주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던 터였다.

따지고 보면 고성 지방은 이 시기가 오면 비에 인색한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계절이 바뀔 때면 언제나 하늘은 한 계절을 잊어버려서 듯 비를 내리지만 이곳은 모종의 미련인지 시원한 비부림을 망설이는 것이다. 더구나 불이 시작되어야 할 이 지방의 최악의 음에는 3월이 다 되어 가도 비는 종종 눈으로 내려 버린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바람이 잦아진 2월 하순, 은근히 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3월의 완강한 찬동적(靑冬的) 구태앞에서는 이내 봄을 체념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4월 어느 날쯤 그야말로 봄은 도둑처럼 이 고장을 찾아 들기는 한 다. 그러나 이곳은 미처 봄이라고 느끼기도 전에 여름에 가까운 계절이 기형적으로 시작된다. 30년, 서울 생활을 한 나로서는 그 기간이 봄인지 아니면 여름인지 확실히 분간해 말하기가 어려웠다.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그 시기를 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서울로 치자면 그러한 기후는 보통 초여름에 가까웠다.

물론 완전한 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이고 365일 중에 이 며칠을 느끼고 기억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고교 시절 문학 서물에 있을 때부터 남다른 감성의 촉수를 곤두세우고 3월과 4월의 공간을 민감하게 관찰하곤 했었다. 그러나 봄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스스로를 감추듯 깨어나고 있었다. 감정의 과잉 상태 있었던 나는 영종한 곳에서, 봄을 찾았노라고 봄의 신비로움을 찬탄하는 시를 쓰곤 했다. 이듬해엔 봄은 농촌에서의 집고사나 뽕밭 불기, 어항에서의 가리비 출어나 성황터의 부산한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나는 한참 후에야 푸른 잎사귀들이 고개를 내밀 때 비로소 봄이라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공교롭게도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봄은 지나가 버린 후이다. 그때부터 이곳은 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여름도 아닌 해무(海霧)현상이 계속되는 이 고장 특유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다.

요즘 느낀 것지만, 가끔 겨울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나서다가 시야를 흐리는 안개 속에서 뜻밖의 따뜻한 바람을 맞고 나면 내 머리 속도 안개처럼 은은 하얗게 비어 버리는 듯한 현상을 접하곤 한다.

이제는 비단 머릿속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일, 혹은 미래라는 공간도 연이어 하얗게 비어 버리는 느낌도 동반하고 있다. 마치 지난 모든 것은 다 비어 버리고 무언가 다시 채우라는 예시라도 받은 것처럼.

- 비가 와야지 불길은 잡힐텐데, 설마 해안가인 우리 집까지 번지지는 않겠지요?

- 글쎄요, 아직은 연기조차 보이지 않아 안심이지만 숲이 이어져 있어 서 두고 봐야지요. 슬쩍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창 위에 걸려진 하늘은 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는 듯, 간간히 햇빛을 토해 놓고 있었다.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부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보니, 이 작은 승용차도 대이상 속력을 내지 못하고 아까부터 심하게 덜컹거리고 있었다.

- 차를 너무 작은 걸 샀나 봐요. 이까지 바람에 이리 요동을 치는 걸 보나……

할부님은 한 달에 9만원 정도이고 인도금 40만원이라는 말에 혹해 차를 구입하기는 했지만 두 달쯤 몰고 다니다 보니 여간 후회되는 것이 아니었다. 트렁크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크에 있는 날에는 음내 잠으로 여러 번 왕복해야 했다. 이 지방에서는 용하기로 소문난 어머니는 사용자(僱徒)들을 멀리 춘천이나 서울에까지 두고 있었는데 이 작은 차로는 다가가기 무척 힘들기도 했다. 언젠가 한번은 서울을 다녀오고 운전석으로 사흘을 앉은 적이 있었다. 기실 휴학을 결정하고 유적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개인 운전사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건강을 회복하며 책 읽고 글이나 써야겠다는 나의 유일한 생각은 차를 사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정을 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쯤되면, 대학 시절 문학 개론 교수의 다량론을 받아들일기로 한 것이다.

다름론이란 다작, 다독, 다상량이라는 전통적인 문학 수업의 방법론에다 다림, 즉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첨가한 이론이다. 이른바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게으른

내 생활을 지위하기 위해서는 여간 용이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누가 사라져가는 '무속인들의 일상'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든든한 자족감이 가끔 그리워지는 대학 생활 따위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다.

- 오늘 곳의 땅자가 돌도 없는 친구였다면서요? 그녀는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 예,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하숙을 함께 썼어요. 대학에서도 교지 편집이라는 같은 일을 했죠.

- 데모를 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 예, 아마도 한이 많이 맺혔을 거예요. 오늘 정자씨가 혼을 받을 건가요?

- 글쎄요, 말문이 터질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 걱정하지 마요. 땅자가 맺힌 말이 많으면 공수가 잘 내리는데요. 어느새 마을에 도착했다. 이미 집 대문 앞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다. 부정한 것이 있었는지 잠깐 주춤했다. 이쯤되면, 상을 담은 사람이라든가 동물의 시체를 보았다는지, 혹은 금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지, 적어도 나에게 그런 금기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보이지 않았다. 한번은 한 늙은 사용자가 대보름 마짓날(신도들의 안됨을 비는 정기적인 무속행사)에 공을 둘러 왔다가 피를 토하고 죽은 일이 있었다. 수십 명이 모였던 그날 우리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지는 일찍 끝이 났다.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집에 찾아와 신당을 깨부수고 어머니의 목살을 잡고 죽은 사람을 살려 내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며칠 간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그 사용자가 죽던 날 아침, 닭집을 북북 찢어서 입에 넣던 모습을 봤다는 다른 사용자의 증언이 나오자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일종의 신법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은 신비화시켰던 것이다. 마짓날, 닭집은 날개 달린 음식은 무속에서는 금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고스름하게 죽어 가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발견한 것은 뒤돌아볼 수 없게 할 때였다. 마짓날, 닭집은 날개 달린 음식은 무속에서는 금했기 때문이다.

불이 붙은 망우리를 가  
 까이 대자 평소 안면이  
**본신 III**  
 있던 할머니가 무언가 자꾸 뱉어 내고 있었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싶었다. 나는 그 할머니의 등을 두들겼다. 계속해서 토사물이 시원하게 뱉어져 나왔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는 곧바로 내 팔 안으로 고꾸라졌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할머니!" 고개가 이쪽으로 돌려지고 나서야, 달빛에 인듯 비취는 선연한 피를 볼 수 있었다. "엄마! 엄마!" 나는 시체의 머리를 놓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어머니만을 불러 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요란하게 울리는 징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퍼져 나가지 못했다. 그 기억은 늘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금줄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주춤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영혼의 죽음을 목도했었던 그날의 기억처럼.

- 아니 아가 영호 아니까? 이게 몇몇 만이고. 현현장부가 다 됐다. 그해 공부는 잘 되고? 빨리 간다고 애는 썼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영호의 어머니가 와 있었다. 못내 송구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죽어 가는 소리로 인사를 했다.

- 안녕하셨어요?  
 - 군대는? 니 군대 갈 나이가 지나지 않았나?  
 - 아, 예 면제받았습니다. 눈 때문에……

거지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정신병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 6개월 전 병명의 증세가 악화되고 있을 쯤, 입대일을 늦추려고 병무청으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입영 연기 신청원을 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재신검을 통과했고 이내 면제 처분을 내려 버렸다. 권위적이기 그지없는 국가기관이 그토록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세부부터 추방당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눈짓을 보냈고 나는 바쁜 일이 있어 다시 나가 봐야 한다고 물었다. 그녀는 글쎄하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어색하게 큰 팔짱을 하며 지갑에서 만원 짜리 몇 장을 꺼내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 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분명 내게서 영호의 모습을 찾아내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불어 다니기도 했었던 비웃는 키에 비스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서 종종 사람들에게

게서 형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곳에 내려 온 지는 반년이 넘고 있지만 그의 어머니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몇 해 전, 시내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주 어머니의 집을 찾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미리 내게 연질을 주어 서로의 만남을 용케 피하고 있던 참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그녀는 순전히 자신의 탓이라 돌리고 있었다. 시내로 집을 옮겼을 때, 집 터가 너무 커서 큰 곳을 한번 해야 한다는 어머니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런 나쁜 기운 때문에 영호의 집안이 불행하게 되었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어쨌든 영호의 죽음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대학 시절, 교지 편집이라는 과의 활동은 하게 된 것은 사실 영호 때문이었다. 그것도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난 후였다. 교향에 내려가지 않았던 놈은 여름 방학 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다. 1학기 내내 잡자거나 책을 읽거나 술 먹는 것뿐이었던 놈이 2학기 들어서 는 나보

다도 일찍 학교에 올라갔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다. 그러고는 불쑥 나에게 "교지 편집 위원회"에 들어가라고 요구해 준 것이다. 타 대학에 비해 창작 환경이 잘 갖추어진 명문과를 다니고 있던 나로서는 과의 활동은 영두에도 두지 않고 있던 터였다.

- 너, 우리가 만든 교지가 전국 교지 출판회에서 대상 먹은 것 기억 안나?  
 놈은 고교 시절에 같이 교지를 만들었던 것을 환기시켰다.

- 바늘 가는 데 실이 따라가지. 응?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늘글맞게 웃으며 옆구리까지 툭툭 찌르는 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편집실을 찾았다. 하긴 시내 소설이나 쓰면서 살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편집 기술이나 배워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편집실은 그러나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니었다.

/ 광고회 투쟁 의식을 기르시오  
 / 정론에 의한 투옥을 각오하시오  
 / 감칠맛이 단결하시오  
 편집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자 눈에 띄었던 문구

었다.

- 난 저 감정을 처음 보았을 때 가슴까지 차오르는 어떤 살벌한 만족감을 느꼈어. 비로소 죽어도 죽지 않을 세계관에 들어와 있다는 또다른 안온함 같은 것 말야. 나중에 놈이 속삭이듯 내게 한 말이었다. 놈은 불발 단체인 전교조(전국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영복지구 회장에다가, 전교조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운영되었던 문화서클의 회장을 맡는 등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꽤 화려한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재판을 받을 때, 학생과 주인의 정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업까지 빠지고 법원을 들락 거렸던 일화는 유명했다. 그때마다 놈은 항상 나를 끌어들었다. 덕분에 나도 문제 학생으로 찍히기는 했지만 어떤 '사상'이나 '주의' 따위는 내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필요치 않아도 적당한 눈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체의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편집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와 함께 처음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의 절망은 극에 달아 있었다. 그때의 서울의 봄은 훨씬 빨랐고 이곳보다는 훨씬 길었다. 사람들은 3월 중순쯤, 외투를 벗어 던졌고 4월 초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뽕밭 만발한 거리를 활기차게 걷곤 했다. 그것이 영호를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문민정부가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던 93년 3월, 그때의 봄은 단순히 시계성(時季性) 이상의 어떠한 역사적 의미까지도 부여되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을 해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시를 쓸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고 다녔다. 그에 비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영호는 마치 음습한 음식 식물처럼 하숙집에서 집거하고 있었을 뿐 도무지 학교 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물론 야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대량 생활, 더욱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의 새로운 생활 치고는 예상의로 너무나 조용했던 것이다. 나에게 그해의 봄은 인생의 한 막을 여는 새로운 희망 같은 것들이 움짱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그에게 봄은 처리라 절망이었다. 5년간 일찍 태어났으면, 그가 1학기 내내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그러한 절망의 끝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치를 멀게 하는 자기 소모적 집착이었다. 아니, 미련이 키워 낸 광기였다. 고작 평과라니 두들기며 선봉대의 후방 지원을 했을 뿐, 한탄도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집어 보지 않았던 그는 언제부터나 사수대의 전면에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릴 겨를도 없이 그는 대학에 들어온 지 세해째 되던 해, 세상을 버렸다.

언론의 큰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묻는 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랐고, 그도 시위 도중 광주의 모 대학 건물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뛰어 내렸던 것이다.

언론이 시대의 계절이 정말 불독이 아니면 아직도 겨울인지 그도 나도, 혹은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더 정확히 말해서 그가 열사가 되기 일주일 전쯤, 가부(거리 투쟁)에서 돌아와 뒤돌아볼 하고 있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계절론을 이야기했었다. '여백의 계절! 세계건 나 자신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깨닫기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련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한다는 것. 대신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는 것. 그 여백에서 모든 것이 다시 쓰여진다는 것. 등등. 어느 사립 체육관 뚜껑할 뿐, 그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담치도 않은 술주정뱅이 나라는 말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의 투쟁성과 그의 계절론 사이의 괴리를 매우려고 마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그는 느닷없이 편집장을 사퇴하겠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가 운동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날도 우리는 '하얀집'에 들었다. 하얀집은 국문과 사람들도 자주 가는 술집으로 과거 80년 대 망명기 서린 곳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위 '문동권'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간판조차 없는 이 술집의 키 낮은 문에 들어서면 환기되지 않은 채 부유하고 있는 담배 연기가 도져 할 아이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왁자한 소리와 함께 어떤 주술처럼 사람을 압도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풍긴다. 언젠가 '하얀집'이라는 다분히 동화적인 이름이 왜 칠회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이 술집의 공간이 되었을까 이야기를 나는 적이 있었다. 순수한 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정신병자들만 모여들어서, 이쯤처럼 사사

철 겨울이잖아 등등.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이곳을 단골로 둔 젊은이들은 대부분 진지해 보였고 그 진지함이 때로는 두터운 외과를 입은 듯했다. 그 외과만 가시나 아니라 경계였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직도 시베리아 흑풍이 부는 겨울이었고, 그러하기에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곳에서 미완의 혁명을 다시 꿈꾸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광기 어린 정신병자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 꽃샘추위, 꽃샘추위일 뿐이랴? 어림없는 소리! 아직도 겨울이야, 겨울! 우오, 썩썩 땀 뺀다! 이젠겨울은 아마 두고 저 지랄들이야!  
 후배 한 놈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려며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좌파 계열인 교편과 진작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근간에 들어서 서로 간의 연대를 지향하고 있었다. 95년, 불부러 대학가에는 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이 등장했다. 94년 미국에 의한 전쟁 위기가 지나가고 모 대학 총장의 메카시즘 열풍이 한창이던 대학가를 뒤집어 놓았다. 주사파 파동을 겪고 큰 타격을 입은 한총련은 NL계열을 중심으로 한 강경 노선을 택하게 되었다. 드디어는 올해, 검찰이 '5.18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일축하자 한총련의 우파진 좌파진 할 것 없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던 것이다.

- 뭐라고? 편집장을 내놓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올해 들어 정권의 폭압성이 더욱 가시워 되고 있다는 것,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이제 정말 투쟁할 맛이 나는데, 너를 잃으면 우리학교 좌파는 큰 타격을 입는단다!

전 편집장의 말이었다. '꽃샘추위'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다가 영호는 그 문제의 '계절론'을 펼쳐서 기다렸다는 듯이 편집장 사퇴와 함께 교편을 떠나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나도 그의 말은 들릴적이었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그가 교편을 떠나겠다는 발언은 운동의 포기나 다름없었다. 정파적 전향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서로간 정파 대립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선, 후배 할 것 없이 오랜 질타가 지나갔다. 누

구는 소주병을 들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희생  
**본신 IV**  
 분자, 청산주의자, 몰역사주의자' 운운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오랫동안 소주잔을 마냥 들이 키던 나도 뜻밖의 말을 꺼내고 말았다.

-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 정부는 이제 타도의 대상이랴! 좌경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너를 쳐다보고 있었다. 기껏해야 교정이나 보면, 마치 못해 집회를 따라다니는 열치기였던 나였다.

- 너 그런 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자, 일어나자. 환송회 겸, 2차는 내가 사지.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의 옆을 따르던 나조차도 아무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그와 나는 미아리에서 동정을 떨어냈다. 절망을 대신하던 동정은 그러나 너무도 짧았다.

영호의 죽은 이후, 나의 무병 증세는 갑자기 완화되었다. 영호 대신 편집장을 맡게 된 나는 후배들을 데리고 거의 매주 열리는 집회를 따라 다녔다. 그런데 집회 때마다 으레 있게 마련인 풍물대는 나를 발작 현상까지 몰아 넣는 것이었다. '운동에서 발열 현상이 일어나고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을 듯 마구 뛰었다. 눈 앞에는 형형색색의 신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귀에는 사물 소리와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왔다. 그러나 나는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정신이 혼미해 짐을 느끼면서까지 참아 내곤 했다. 심지어 미니 카세트와 들고 다니며 풍물 소리가 들려 오면 헤드폰을 귀에 꽂고 락음악을 최대한 볼륨으로 들곤 했다. 풍속의 일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현실로 재현되기도 했고 사사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전에 없는 욕망이 일어나 거의 정확하게 맞곤 했다.

- 무병은 그 사제가 무척 다양하여 단일 질병이라 보기는 어렵고 각 종 신체적, 정신적 증후가 섞인 복합증후군입니다. 엑스레이 증상과 예지 능력까지 있는 걸로 봐서 무병인건 틀림이 없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유전적인 면이 더 강하기도 하지만 시위 도중의 풍물소리만 들으면 병의

편집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자 눈에 띄었던 문구



### 제12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중세가 심해지고, 평소에는 특별한 육체적 고통이 없다면 어떤 다른 정신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면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 간 것은 더이상 참아 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후배의 말에 의하면, 풍물패의 장을 빼앗아 남산 종턱까지 올라가 장을 두드려야 할 수 없는 말을 증명해줬다는 것이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학교 후문 종합병원이었다. 의사는 정신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향이 속초 근방이라고 하자, 그는 친구가 있는 도림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마침 2학기가 끝나 가던 참이라 편지실을 후배들에게 인계하고 나는 기발 고사도 받지 않은 채 서둘러 집으로 내려 왔다.

- 걱정하지 말거라. 네게만은 무담 노릇 안 시키고 말게다. 신졸도 3대 이상은 가지 않는 법이다. 이 사나운 무담 팔자 뭐가 좋아서 아들놈 인생을 말아먹게 놔 두겠나!

집에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 방법은 신 말을 다시 들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순전히 나의 무병이 자신의 신졸의 영광이라 보았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장구나 징 같은 무기(武器)를 가지고 놀거나, 낫 흉내를 내면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던 어머니였다.

정자씨가 들어온 이후, 과연 더이상 나에게 무병 증세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끈기를 따라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던 횡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무병이 정말 치유되고 있는 듯했다. 반면, 정자씨는 착실히 무담 수업을 했다. 내림굿이 있던 날 쪽을 들고 꽤 자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묘한 쾌감에 젖어 들고 있었다. 내 왜곡된 운명을 그녀가 걸어 간 것이다. 이제 비로소 온전한 내 모습이다. 리는 식의.

나는 다시 읍내로 향했다. 읍내에는 한 시용자가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남긴 집 한 채가 있다. 마땅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터이기도 했지만 정자씨와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이 불편해서 진작에 그 집으로 내 거처를 옮겼다. 더구나 어머니는 신당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이 신졸을 때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정신과 의사와 권장하는 바여서 여러모로 용이한 선택이었다.

책 몇 장을 넘기다가 깜박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깨어난 것은 요란한 싸이렌 소리 때문이었다. 근방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낮에 라디오에서 들은바

있었다. 그리고 산불은 이때쯤이면 오래 있기 마련이지 않은가? 혹시나 해서 막 시작되고 있을 지방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뉴스이기보다는 비상 재난시의 속보에 가까웠다. 산불은 이미 해안가까지 밀려 들어와 주민들이 대피하고 군인들과 소방수들이 한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치솟는 검은 연기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마을은 어머니의 마을과 멀지 않았다. 전화는 이미 두절된 상태였다. 곧장 차를 몰았다. 읍내를 빠져 나왔을 때 도랑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불길은 차창 유리 위에서 먼저 빛나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그런데 집이 있는 마을을 바로 앞에 두고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불길이 도로를 뛰어 넘고 있어서 군인들이 자동차의 통행을 막은 것이다. 할 수 없었다. 도로 양 옆의 불길이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담배를 꺼내 피웠다.

그런데, 차창 밖의 불길을 바라보다가 나는 알은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산불이 도로 옆으로 뻗은 산줄기를 타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튼 바람 때문에 도로를 뛰어 넘어 바닷가 쪽의 방풍림에 옮겨 불고 있었다. 곧이어 강한 바람을 탄 방풍림의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바다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바다 위에 비친 불길은 강간하듯 순한 달빛을 일거에 삼켜 버리며 이미 어둠에 순종한 주위 것들을 핏빛으로 선동하고 있었다. 이제껏 시계에 순종하듯 안전했던, 아니 그 내면의 생명력을 의심할 만큼 풍광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었던 산이 넘쳐 나는 생명의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산은 이 한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던 것일까? 나를 흥분시키고 있었던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산봉우리까지 타올라 개질 듯이 감감하던 불이 순간 발악적으로 하늘 위로 치솟아 올랐다. 그리고는 분수형의 긴 여운을 남긴 채 불길은 이웃 봉우리로 사라졌다. 그런데 곧, 그 봉우리에서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 불은 걸잡을 수 없이 산꼭대기를 타고 아래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순간 마음속의 흥분이 기억 저편의 광기를 끌고 오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열굴이 환관하게 달아오르고 두 눈이 검게 타 들어가는 듯 눈 앞이 깜깜해졌다. 철렁 철렁 철렁.....,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끝내, 입속에서 단말마의 과성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영혼이 온몸을 불태우며 뛰어 내리던 바로 그때, 그때의 영상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눈을 감고 고

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또 주체 못할 걱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뒤에서 경적음이 들려왔다. 마침 길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두 손으로 꼭 잡았던 핸들을 고쳐 쥐었다. 맘이 흥건하게 배 있었다. 브레이크를 떼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나 굉음을 낼 뿐, 도무지 차가 나가지 않았다. 제기랄, 차가 왜 이러는 거야? 머리 속은 방울덩이가 해집고 돌아다니는 듯이 고통스러웠고 속초차 고루 일 수 없었다. 아아 이러면 안된다. 우선 짐까지 갈 때까지만, 참아야 한다. 머리 속에서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갔다.

- 7층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온통 휘발유를 뒤집어 쓴 놈이 무언가 몇 마디를 힘있게 외쳐 댔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내 귀와 내 눈과 그리고 내 몸 모두가 내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곧, 그 라이더 불을 켜어 오. 순간 그의 몸에서 불덩이가 치솟아 오르더니 이내 건물 밑으로 몸을 던져 버렸습니다. 탄막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바로 직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 몇몇 사람들이 뒷통을 벗어 서둘러 불을 끄고 있었고 이내 여기 저기에서 비명과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는 박살난 머리통에서 흘러 나온 피가 고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급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검게 그늘리고 더구나 피가 뿜어져 나 오는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른 편지실 깃발로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그치지 않고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바랜 것발이 더 붉게 번져가고, 멀리서는 앰블런스가 작동을 중지 못하고 있는지 싸이렌 소리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징소리가 들려오고 이내 장구와 바라, 켈리리 소리가 온 몸을 바스르르릴 날 들려 왔습니다. 그 소리는 풍물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타악기들의 소리는 커져만 갔고 마침내 주위에는 감옷과 칼을 찬 신장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방울 덩이가 내 머리속에서 마구 돌아다니는 듯, 머리 속이 찢어질듯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 버린 것입니다.

- 뿔뿔히 나도 모르게 핸들에 고개를 떨구었다가 경적음이 놀라 얼굴을 들었다. 얼른 가속 페달을 밟아 밟았다. 역시 굉음을 낼 뿐 차가 나가지 않았다. 옆을

지나던 차량들이 경적음을 누르고 지나갔다.

- 어봐요, 어디 불편하세요? 핸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차량 통행을 지도하던 군인이 차창 밖에서 외쳐 왔다. 아차! 핸드 브레이크를 서둘러 내렸다.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심하게 덜컹거리며 급출발했다. 아찔했다. 히터가 켜지면 앞지르던 차와 부딪힐 뻔했다. 육설 섞인 고함소리는 그러나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곧, 마을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마을은 산불로부터는 안전한 것 같았지만 정전으로 온통 어두웠다. 사람들이 리사루소 마당으로 나와 멀리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산불을 구경하고 있었다.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지 후근함에 못 이겨 차창을 열었다. 순간, 징소리가 크게 들려 왔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집들과는 달리 여기 저기 켜져 있는 촛불 때문에 마당까지 환해 있었다. 마침 정자씨가 영혼의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고 공수를 내리고 있었다. 물다, 흠뻑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울먹이고 있었다.

- 어머니요, 내가 왔소. 온이 온줄 누가 알고 간지 간줄 누가 알리. 곧 맥이빠진 문을 열어 넘어가도 내왔다. 원 맏하고 한 맏하는 말을 언제하고 다시 갈고. 이영 이영 이영~. 문밖에서 나는 몸의 열을 진정시키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나 정자씨의 공수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사물소리 때문에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다시 고개를 드는 몸속의 격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신당으로 뛰어 들어갔다. 내가 들어서자 정자씨가 고개를 들었다. 이미 정자씨의 눈빛이 아니었다.

-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친구, 영호, 영호가 아닌가. 왜 이제야 내 앞에 왔느냐, 내가 얼마전 꿈속에서 너를 부르고~, 부르구, 니 차운전 하는 데 혹시 사고가 날까~, 날까, 니 옆자리에도 앉아 지켜 보고~, 보고, 내 못나한 꿈 부하러구~, 하러구, 니 책상에 앉아 보구, 아이구 원통해서 나는 극락에 가지 못했다. 정자씨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더니 신당 안에서 켈리리를 꺼내 들었다.

한참을 두들기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문화 선봉대 지영훈이었다.

- 어허,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영호하고 놀고 갈려네.

그는 신당에서 북을 꺼내 내게 들려주었다. 그의 켈리리 소리에 맞추어 대학 시절 한껏 배운 북장단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영혼을 따라 마당을 휘휘 돌았다. 징, 장구, 바라 소리와 함께 그와 나의 켈리리 북 치는 소리는 점점 커져 갔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들기 시작

했다. 멀리 떠오르는 산불의 일별을 마치 막으로 나는 정신을 놓쳤다.

창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자씨가 뚫어 온 미음을 조금 먹고 나서 야 뚫어 가버려 졌다. 침대 매트리스를 45도 각도로 올리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창밖, 호수가 시야에 넓게 들어왔다. 호수는 그 깊숙한 눈을 감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멀리 호수의 한 모퉁이에서는 바다로 통하는 수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호수와 바다 빛은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언젠가 지리 선생의 석호에 관한 설명이 떠올랐다. 원래는 바다였던 것이 모래톱이 가로놓여져 호수가 되었고 주로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에 잘 발달되었으며 민물고기와 바다 고기가 어울려 사는 곳으로 경치가 빼어나서 술한 전설과 민담을 간직하고 있으며....., 마치 현장학습이라도 하는 듯이 지리 선생은 학교 앞의 저 영광호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 넓은 창이 잠시 동안 우리의 절편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저 모래톱을 걸어 놓으면 호수는 다시 바다가 될까? 오염된 호수는 다시 생명들을 키워 낼 수 있을까? 고고 시절, 창밖에 호수를 바라보며 늘 품고 다녔던 순진한 의문들이었다.

- 산불은 비 때문에 그쳤어요.

- 결국 사람의 힘으로 끝낼 수 없었나 보군요. 그녀가 녹차에 물을 따르면서 마침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를 동안 나를 떠나고 있지 않았다. "이름 내내 부인께서는 주무시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녀가 자리를 비었을 때 간호사가 귀띔했다. 그녀와 내가 부부 사이라? 무담과.....,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시 무릎에 누게 하고 이런 물음을 자주 했다. "우리 영호가 크면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올꼬? 애비 없는 자식애다가 예미가 천 무담이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던 것 같다. "엄마 같은 무담하고 결혼하지." 어머니는 나를 일으켜 안은 채로 한참을 울음을 놓았다. 무엇이 어머니를 그렇게 설움게 했을까? 괜한 상상이기도 해서 몇척은 듯이 그녀가 건넌 녹차를 훌쩍 들이켰다.

- 저 호수 바깥 쪽까지 불이 타들었대요. 그녀는 긴 손짓을 하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쪽을 가리켰다. 희미하기는 했지만 과연 시커멓게 탄 숲이 눈에 띄었다.

- 보기 좋았겠군요.

- 네?

- 아, 아닙니다. 정자씨는 저 울산바위와 영광호의 전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무료했다는 듯이 나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 본신 V

- 울산에 있던 바위가 금강산이 되지 못해서 저기 저렇게 놀러 앉았다는 전설은 알고 있어요.

- 그럼 영광호가 울산 바위의 눈물이 굼입 없이 흘러 내려서 호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었군요.

- 어머, 그래요?

- 영광호는 그래서 물맛이 짜답니다.

- 정말, 말이 되는군요. 울산바위의 한이 고인 곳이 영광호군요!

- 한이 고인 호수라, 역시 만신다운 말 씀입니다.

- .....

이야기의 맥이 다시 끊겼다. 만신이라는 말이 걸렸을까? 무담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은 말은 쓰고 싶지 않았다. 여자 무담을 한없이 높이는 말이 만신이였다.

- 저처럼, ....., 내림을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실 건가요? 이제 신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녀의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녀는 아까부터 계속 해서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진작부터 품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적개심을 품어 놓고 있지 않았다. 자신과 하등의 상관 없는 사람의 운명까지 자신도 모르게 집 질 뻔했다는 사실에 짐짓 분노심이 일었을 법도 하지 않은가?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미안함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녀의 물음에 대한 유보도 아니었다. 나에게서 이미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것은 체념과는 다른, 독기가 된 모든 기억들의 소진 같은 거였다.

- 예전에 제가 내림을 받기 전에 신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한을 안으로 품으면 밖으로는 살기가 된다고요. 그녀는 창밖을 훑어지려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컵을 입에 대었다. 호~ 하고 입김을 불어넣자 순간 뜨거운 수증기들이 날아올랐다. 창밖, 저쪽에서는 수문이 3개 짝 찢어져 열리고 있었다. 호수물은 밀려드는 거센 파도와 마치 힘자랑을 하듯 흰 포말을 일으키며 맞부딪쳤다. 열린 수문에 놀란 듯 호수는 가장 자리부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호수를 둘러싸며 심어진 버드나무는 머리채를 온몸으로 흔들며 바람을 맞고 있었다.

독기를 가져 내고 있는 호수처럼 멀리 자기를 온통 비워 낸 불탄 숲도 지난 살기들을 씻겨 내려는 듯 흠뻑 비를 맞고 있었다.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해무 현상이 계속되는 '여백의 계절'이 시작될 것이다.

끝

# 동대 학술상

## 사회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 인터넷상거래를 통한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

### 제35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 인문과학부문

가작 '신문광고의 문법적 운용자를 통한 문법 교육의 활용 방안'

#### 자연과학부문

제출 논문 없음

####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문

이종천(문과대 국문과 교수)

홍은식(사범대 역교과 교수)

사회과학부문

#### 사회과학부문

본상 '인터넷상거래를 통한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

백경남(사과대 정의과 교수)

고유환(사과대 북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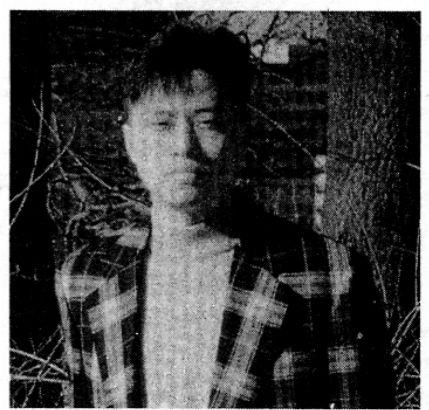
김남기(경성대 무역학과3)

김석태(경성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35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사회과학부문 본상 수상소감

“산고 끝의 빛, 채적질로 삼을터”



김남기 경성대 무역학과 3

“빠빠~ 빠빠~”... “메시지 청취는 1번”... “저, 안녕하세요? 동대신문사입니다. 동대 학술상 사회과학분야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뒤늦게 도착한 성탄절 선물일까? 호출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믿어지지 않아 두세 번을 듣고 셔야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다. 선물과 함께...

이번에 제출된 사회과학부문의 논문은 9월 중순 후배의 다급한 부탁으로 하게 된 13회 무역학과 심포지엄이 발단이었다. 3학년으로 복학을 한 후에 과연 학과를 위해 할 일이 없나 생각하던 때에 그러한 기회가 왔고 더욱이 무역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있었으므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던 끝에 결국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무역학과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아래 토론에 들어가 몇 고비를 넘긴 산고 끝에 하나의 작품집을 만들었고 또 다시 동국대 신문사를 통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잠시 기쁨에 젖어 보지만 이 분야에 한 발짝 앞으로 디딘 만큼 이번 기회를 수습이 아니거니와 살 수 없는 한국의 실상에 도움이 되고자 좀 더 노력하라는 채적질로 삼고자 한다. 물질 앞면 도와주는 가족, 관심을 쏟아 준 김석태 교수님, 학우들, 사랑스런 정애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좋다. 또 궁극적으로는 전자화폐와 같은 보안상의 문제가 거의 없는 전자결제방식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받은 물건을 되도록 빠르게 소비자의 손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 즉시 배달관련 부서에 주문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체계적인 배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회사 규모상 자체의 배송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일반 배송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일찍이, 신뢰성문제를 해결하라. 지명도가 적은 중소 업체 제품의 경우는 신뢰도가 높은 Cyber Mall을 통해 가상 시장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각 제품에 대한 상품의 질과 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컨트롤 하게 한다. 또한 의뢰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제 3의 외부 모니터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발행토록 해서 소비자의 정보 위함을 줄이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인터넷마케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아이와 같다. 산물리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어떻게 키우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매력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서는, 글로벌의 특성과 정보의 특징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마케팅이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제 불모지를 찾기 위한 항해는 시작되었다. 문제는 어떤 규모의 배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선진 7개국(G7)도 초고속 정보 통신 10여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자 상거래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자 상거래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지만 통상산업부의 종합대책 이후 각 관련부처에서 자체적인 연구노력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관련 S/W의 개발, 소규모 물 구축 및 중소기업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3. 인터넷 상거래의 특성

전통구매방식(Old Way)과 인터넷구매방식(Net Way) 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무한한 전시간, 다양한 제품선택, 풍부한 제품 정보, 저렴한 가격, 계획구매, 인터넷의 개방성, 인방에서의 쇼핑, 현실감 있는 쇼핑, 다른 사이버 물(cyber Mall)과 연결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Net Way가 단연 유리하다.

이에 비해 인터넷 상거래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해킹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감 정도가 현재 기술이나 제도로는 일반인들을 명쾌하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물건 구입 시 자칫 잘못하면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최대의 약점인 비싼 온라인 결제 비용을 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인터넷 백화점의 가격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국내백화점에서 인터넷 쇼핑의 최대 장점인 가격절감을 기업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상호아래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중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저렴한 인터넷 가격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가 이뤄지려면 먼저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인신상 정보를 암호화할

지니스 요구가 기술을 변화시키는데 기술이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데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한 월드와이드웹(WWW)과 e-mail의 폭발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현재의 비즈니스관계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있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고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 따른 제반 활동을 정보기술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Internet), 전자우편, 바코드, 전자 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은행 결제기구를 통한 전자자금이체),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시스템 등 제반 정보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 이런 일반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Internet Commerce)를 일컫는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과 장점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거래는 협의적으로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쇼핑 물의 형태, 통념상 비즈니스 교류 또는 고객 판매 등의 정보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와 가장 광범위하게는 각종 정보를 수집한 후 고객이 그러한 정보를 통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나뉠 수 있다.

2. 각국의 인터넷 상거래 현황

인터넷 상거래 시장은 2000년대에 6,579억달러(592조 11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 동안 슈퍼하이웨이 구축 등 정보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는 미국은 97년 7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이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함으로써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그 이전부터 미국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600만 달러를 투자, 인터넷 상거래 연구를 위한 비영리기관인 이커머스넷을 설립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을 시험하고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민간기업들이 전자 상거래 관련 10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일본 전신전화(NTT)를 비롯해 6개 업체가 참여한 스마트아일랜드컨소시엄(SIC)등 민간 주도 전자 상거래 컨소시엄을

으로 시공을 초월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미래의 황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일부인 인터넷 쇼핑물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도는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전자우편 및 결제, 관련정보탐색, 신분보기 등의 수준이었다.

기업에서 보면 인터넷은 기업 활동, 특히 고객만족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불과하다. 홈페이지 구축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 홍보와 판매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하부구조의 구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객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1. 인터넷 상거래의 등장과 이론적 체계

초기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성숙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와 기업 사이의 온라인 자금거래 등 2가지로 크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POS(Point Of Sale)식 거래 기반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구조는 즉각적인 고객 서비스, DIY(Do It Yourself)식 구성, 도움말 데스크, '언제 어디서나' 식 서비스 등에 기반을 두고 구축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고, 비

4.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빛 좋은 개살구! 최근 인터넷붐을 타고 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 중에서 간혹 인터넷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이 있다. 실제 한국 상품 홍보 관련 웹사이트의 평균 조회율은 증가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1달에 1만 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내용을 한글로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다 뉴스그룹 등에 홍보를 활발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그룹에 한국 관련 기사가 실리는 경우는 하루에 고작 2~3건에 불과하고 무역분야에서는 한두 건이 실릴까 말까 한 수준이다. 게다가 직접 Inquiry가 들어오는 것은 3~4건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무역업체의 개별 홈페이지를 조회하는 회수와 Inquiry 수는 어떻게 될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일반적인 숫자의 10~20배가 넘는 조회율을 자랑하며, Inquiry도 하루에 수백 건이 들어오는 업체의 사이트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양분화 현상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일까?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독특한 마케팅 환경과 현재의 시장상황에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에 있어 새롭고도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창출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맞는 제품과 상표의 개발을 하고, 둘째로 유인가격, 주문량에 따른 가격인하,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 책정 등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전자결제가 필요하며, 셋째로 각각의 제품에 맞는 홈페이지 가상상점 구축, 상품검색과 주문, 거래

- 1.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이론적 체계 정립 및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이해 도모
2. 각국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동향과 이에 대응한 한국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내용 파악 및 대책방안 모색
3. 기존의 전통 상거래 방식과 인터넷 상거래의 방식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내고, 새롭게 부상하거나 기존 방식에서 정보통신의 기술을 입고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발전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
4. 한국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의 현주소를 통해 효율적 마케팅 전략 연구 및 인터넷 상거래가 올바르게 정착시키는데 촉매 역할

Cyber 납매문 시장이 도래하고 있다.

이제, 이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람치고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도 각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전파되어 웬만한 기업이나 초등학교도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미래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틀림이 없다.

인터넷에 관한 한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늘 늦게 시작해서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무성해 달려가곤 했던 한국에게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

Table with 4 columns: Marketing Type (대중, 표적, 일대일), Target Audience (대상), Method (시장접근방법), Objective (마케팅 목표), Scale (경제원리), and Control (관리). It compares mass, target, and one-to-one marketing strategies.

(마케팅 개념의 변화)

사회과학부문 심사평

구체적 마케팅 전략 제시 '학술'과 '실용'의 효용성 돋보여

본 작품은 최근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의 마케팅 부분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는 기존의 국제 상거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하고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연구들은 전자 결제와 보안 문제와 같은 요소 기술과 국제적 관세법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마케팅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의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정의와 이론 그리고 각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인 측면과 기업들의 인터넷 마케팅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주제와 소재 선택에 있어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방법이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 자료들에 비해 최근 신문과 전문잡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의 활발한 전자 상거래와 최신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인터넷 상거래의 빠른 변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전자 상거래의 주요한 요소인 마케팅 부분에 대한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학술적인 측면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석태 경성대 무역학과 교수

아홉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보고

1만여 관객이 모은 '인권존중'의 한소리

23일, 전주한·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이 죄값을 다 치르지도 않은 채 자유의 몸이 된 다음날,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충체육관에 서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렸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 전체 양심수의 복역년수를 합치면 2천년이 넘을지도 모른대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사회를 본 명계남씨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강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1만여명 관객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97년 10월 1일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임기란 이하 민가협)에서 각 대학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양심수의 수는 8만59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63.2%에 달한다고 한다.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또 한명의 사회자 최관기씨가 어느 교회의 성가대이라는 어린이들을 소개했다. '고요한밤 거룩한밤'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나와 희망을 연주하고 희망을 노래했다. 정태춘·박은옥 부부, 메이데이, 꽃다지, 조국과 청춘 등 민중가수 뿐만 아니라 리아, 최백호, 장혜진, 박상민, 황신혜 밴드, 권해효 등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익히 이름을 들은 연예인들도 "그 뜻이 좋아 동참했다"며 청중들에게 노래와 웃음을 선사했다.

벌써 9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준비하고 있는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담담하게 이날의 행사를 '양심수 문제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자리'로 이야기 한다.

그리고 "오랜 숙원이었던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으나 그 첫 사업이 전·노사면에서 실패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이 땅의 변화 인권존중은 언젠가는 꼭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희망을 믿는 민중이 있는 한 그들의 내일은 자유입니다" 열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은 '양심수 석방 촉구'의 밤'으로 변화하길 기대해 본다.

최진 기자

창 앞의 한 그루 오동나무

달하나 천강에

남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커다란 잎을 잃은 나무가 조금 따스해지는 것 같다. 창밖을 내려다 본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마저 드물다. 고층 빌딩에서 흘러지는 불빛을 가리지 않은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떨고 있다.

을 지켜주고 있는 그 곳. 아, 오늘은 꼭 창문을 열고 내려다볼 때마다 싱그러운 미소를 보내주던 오동나무를 가까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돌계단에 앉는다. 바람은 잦아들었다. 오동나무는 그 곳에 있었다. 푸른 잎사귀를 이 세상에 다 내어주고 그 깨달음의 빛들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떨고 있지 않았다. 비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과 연구실을 밝혀주는 불빛이 반딧불처럼 모여 있고, 높이 솟아있는 오동나무가 정각원의 고즈넉한 빛들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다시 한번 오동나무를 돌아다 보았을 때 풍란화 매운 향내로 우리들 곁에 있는 만해 한용운의 한시 한 수가 떠올랐다. 새 소리 꿈 저쪽에서 차고 (禽聲隔夢谷) 꽃 내음은 선에 들어와 스러진다 (花氣入禪無). (花氣入禪無) 선과 꿈 다시 잇는 곳

(禪夢復相忘) 창 앞의 한 그루 벽오동 나무 (空前一碧梧) 어찌면 우리들 마음 속에 저 오동나무가 있는 한 이번 겨울은 그다지 춥지 않을지도 모른다. 봄이 오면 그는 여전히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좀 더 빨리 옮겼다. 어둠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 오동나무의 푸른 향기가 배어 있는 듯하다.



고재석 사범대 국어교육과

97 영화계가 남긴 숙제 '영화계 돌파구 ... 관객이 찾아야 할 때'

한해를 결산 평가 하는데 있어 '잡잡했던 지난 1년'이란 표현은 언젠가 불가능한 것 같다. 환율인상에 따른 외화 수입가 폭등과 한국영화 제작편수 격감 등의 이슈가 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음에도, 영화관을 찾는 여러분께 후시라도 도움될 내용들만 97년 영화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난 2월 관객 운동의 패거리를 보여준 다들스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 문체의 영화 '에비타'가 뮤지컬 대작이자 수입가도 비싸서 서울 기준으로 관람료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겠다는 기습인상 작전이 컴퓨터통신을 중심으로 한 여론 물리로 저지되었다. 관객이 달라진 대로 주는 호구인가? 관객은 더럽고 후진 극장도 기계가 찢는 성인인가? 결국 12월, 하루 2·3회 상영하는 4시간 40분짜리 영화 '김밥'은 7천원선의 스타트를 끊고야 말았지만, 리턴 값도 오른다는 98년

엔 관람료가 소폭인상될 조짐이지만, 입소문만 내는 줄 알았던 관객이 영화 개봉 전에 '소비자 운동'을 보여준 계기였다. 둘째, 지난 '제 5원소'의 흥보차 내한한 박배송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영화가 상영회를 늘리기 위해 13분 가량 잘린 사실을 알고 이에 분개하여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출국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관객들은 그동안 많은 영화가 (검열에 의해 강제제가 아니라) 길다는 이유로 잘려 상영된 관객을 알고 감독만큼이나 분개했지만 '제 5원소'는 결국 잘린 채로 상영되어 흥행하였다. 돈주고 영화 보기도 사실 힘들다.

셋째, '쇼킹 아시아'를 본 관객들은 일단 영화 내용에 충격을 받았지만, 96년 11월 위험관절 이후에도 검열의 서늘이 시퍼런 이 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상영된다는 사실에 또한 놀랐을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가위질 자체를 없애는 것.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완전 등급제를 실시할 것이다. 넷째, '97 우리들의 영화'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으니 개별 영화뿐만 아니라 쿼터 영화제나 인권영화제 등 탄압 받는 낮은 목소리들이 정말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넷째, 편견에 가득 찬 저질 다큐멘터리 '쇼킹 아시아'가 1백만 관객을 모으는 쇼킹한 사건이 발생하자 영화 홍보의 방법이 충격요법으로 바뀌었다. '쇼킹, 나쁜 애들', '쇼킹, 산부인과', '쇼킹, 누드탕' 등

비장트영화는 관객에게 다가가는 쉬운 방법으로 '쇼킹, 아시아' 코드를 선택했다. '빨간 마후라' 소동에서도 보여지듯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범사회적 관음증에 시달리는 듯 했다. 다섯째, 그런 가운데서도 남녀 주인공이 손 한번 잡지 않는 심심한 영화 '접속'이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이 영화는 OST음반도 60만장이나 팔렸으며 일간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는 등 하나의 문화적 신드롬이 되었다. 이밖에 '황', '비트', '편지' 등 많은 한국영화가 예년에



비해 상당한 흥행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우호적인 반응에 찬물을 끼얹은 일부 한국영화들은 IMF시대의 이상한 예측시에 의해 구제되는 일이 없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였다. 전보다 많은 전파들과 지면들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크고 작은 영화제가 1년 내내 열릴 지경이며, 수많은 극장 개봉작과 비디오 출시작들이 영화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영화문화는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가는 가운데, 관객의 역할로 새로운 질적 돌파구를 마련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승희 본고 영화학 석사교정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 교내 어학프로그램 개발로 극복해야

본 기사는 대학교육 90호 '지성토론' 1년에 실린 이기정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의 '해외어학 연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발췌한 것입니다. "세계화 붐을 탄 해외어학연수 열풍은 경제난과 유학생 피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문민정부에 들어 한동안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계화하고 국제화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사람들은 영어실력향상을 그 방법으로 생각했고 교육계의 획기적 변화없이 영어에 대한 열풍은 불기 시작했다. 급기야 해외연수의 맹목적인 추종 속에서 '3~4백만원에 이르는 경비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해외연수가 과연 효과적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우리는 해외연수의 득과 실,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나 입시

에서 영어는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며 인간 필름이를 대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쌓기보다는 영어실력을 기르기 위해 해외어학연수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무비판적인 추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엄청난 무역적자와 경기불안으로 인한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일인당 한달에 3~4천달러에 이르는 자금은 심각한 외화 낭비로 인식된다. 둘째, 어학연수생의 성실성 문제이다. 지난해 방문한 대학에서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출석률이 제일 저조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 학생들이 음주, 도박 심지어 마약이나 성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넷째, 공신력이 없는 유학알선 업체의 소개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다섯째, 현지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실 어학원은 프로그램의 질이 좋지 않다고 나타났다. 여섯째, 몇몇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학생들만을 구성하여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 학생들끼리 한국어 대화를 하여 해외연수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기도 한다. 셋천여개 이상의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국제 무대에서 의사소통의 85%를 이루고 있는 영어는 '배워야 한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해외연수에 직접 나가 외국문화를 접하고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있는 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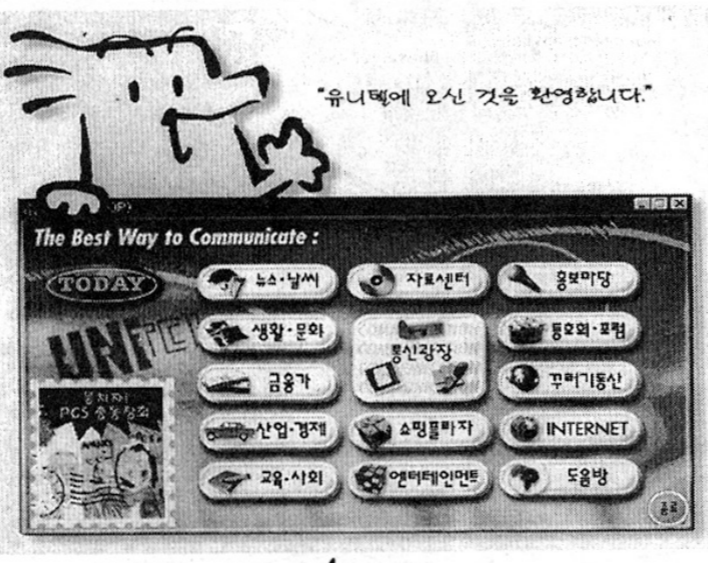
그 대안으로 교내 어학교육과 연계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용과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은 국제교육과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서 교육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해외어학연수에 대해 각 대학은 적극적인 대처방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내 어학교육과 연계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체결원 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하면 많은 경비를 절감하여 양질의 어학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리 = 최진 기자

대학생의 진로·취업·대학문화를 위한 대학정론지

대학문화, 「대학문화신문」이 이끌어 갑니다

유니텔 'Campus 21'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유니텔 Campus 21'은 대학생 종합정보망으로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의 구현과 대학생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유니텔과 대학문화신문에서 운영하는 Campus 21에는 '대학문화신문과 전국 30여 온라인 대학신문 기사정보' '대학생 HOT 이벤트 '진로·취업·문화 등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대학쇼핑몰' 등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유니텔 'Campus 21'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JUST Click! Compus 21 '온라인 대학신문(gounipress)'

대학문화신문 정보서비스 안내

- (대학문화신문 기사정보)
● 대학문화 TOP 뉴스
● 대학종합포도
● 취업뉴스
● 기업 & 산학소식
● 어학 & 실용정보안내
● 문화읽기(기획/비평/출판)
● 대학문화 한마당
( UC 인포메이션 )
● 대학생리서치
● 대학생 현상공모
● 파워이벤트
● 채용정보
● UC자유계시판
● 알림마당

대학문화신문
서울 종로구 유니텔 98-78(가든타워 10F)
전화 762-1366 / 팩스 762-1749
유니텔·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ID:UCPress

한국언론운동 어디쯤 왔나

- 1. 총론
- 2. 한국언론 얼마나 자유로운가?
- 3. 민주언론의 발달과 전개
- 4. 현대 언론운동의 한계와 대안

**“언론부도를 막기 위해선 ‘주체적 관심’이라는 국민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 수용자 참여폭 줄어든 속빈 언론 지속적 시민채찍 절실 ... 권언유착 골레 벗어나야

정경유착의 종말적인 현상이 오늘의 한국을 부도케한 부도덕한 소치라면, 권언유착은 오늘의 언론을 한마디로 권력과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자본의 팽창자로서 권력유지와 영리추구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을 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충족과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거울'로서 언론은 경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문은 정치적 색깔논쟁, 월드컵과 박찬호의 기사로 치달았고 방송 또한 마치 오락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내용과 형태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언론 환경에 대해 과거 60년대

의 '정치적 또는 사회운동', 70년대의 '언론자유실현 운동', 그리고 80년대의 '언론노동 운동'과 90년대의 '시민언론 운동' 등은 언론의 본질을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들이었으며, 언론 자체의 민주화에서부터 언론을 통한 사회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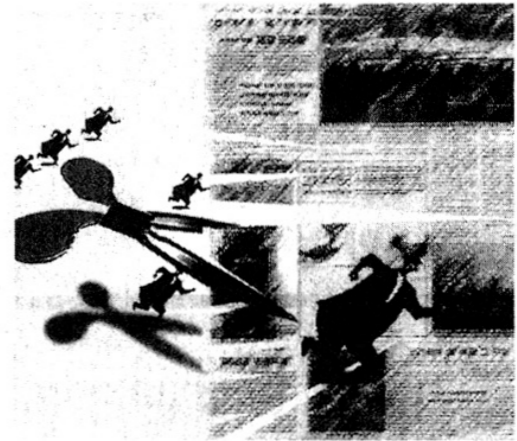
이러한 언론 운동은 우리를 하여금 언론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되새겨 보고, 이 사회에 걸맞은 언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언론 운동에 대한 한계점으로, 지나친 이상적 목표, 조건과 역량을 고려치 않고 총체적 해결을 시도한 비현실성, 느슨한 조직, 지속성의 결여, 연대 운동의

실패, 소수의 지식인 중심, 사후 감시로 인한 진보성의 결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치중된 활동 범위 등으로 언론 운동은 그야말로 언론안에서만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사들여지는 양상을 띄우기 시작했다.

뉴미디어,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은 외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양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 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점과 지배가 더욱 심화되고, 언론 민주화의 관건인 공중의 접근과 시청자 참여의 폭은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PC 통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모뎀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수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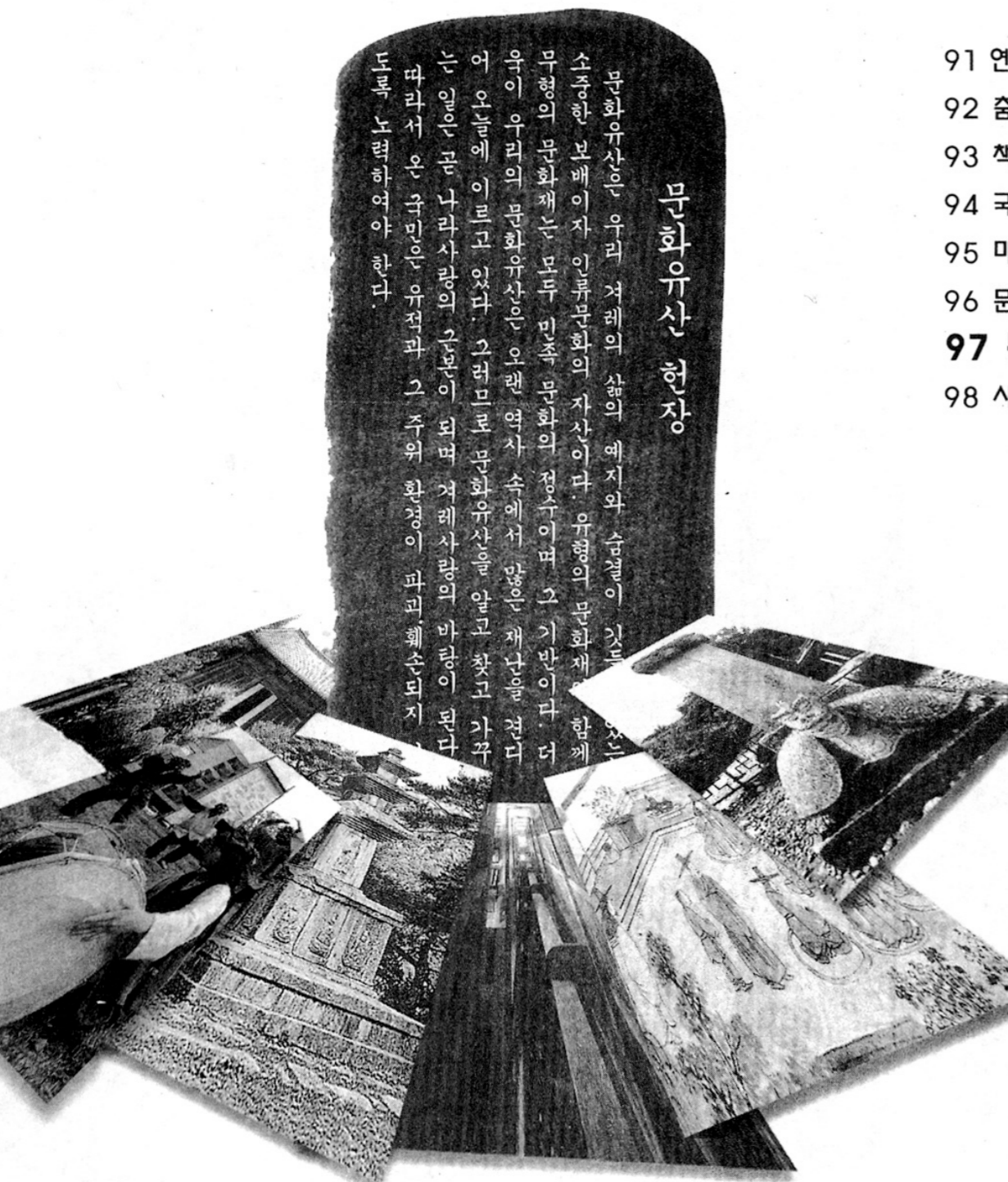
이를 위해 언론 운동은 이념(이상)과 실천(현실)의 조화, 수평적인 상호연대 및 연계성, 아래에서 위로의 자생적 활성화, 한 운동 대메시지 전략, 운동의 세분화 및 전문화, 체계화 및 일관화, 바른 미디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방만하고 부실한 언론을 바르게 세워 '사회의 공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운동에 대한 주체적 관심이 국민의 긴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준석  
중앙대 신문학과 석사과정

'97 문화유산의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과제

# 정신 깃든 문화 보존 · 창조 하기



- 91 연극 영화의 해
- 92 춤의 해
- 93 책의 해
- 94 국악의 해
- 95 미술의 해
- 96 문학의 해
- 97 문화유산의 해
- 98 사진영상의 해

문화체육부(장관=송태호 이하 문체부)는 91년부터 '00의 해'를 지정, 관련분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한 장르를 지정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그 관련분야를 중점 지원·육성하겠다는 의도로 문체부는 그간 7개 해를 지정, 관련사업을 펼쳐 왔다.

그렇다면 해는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

우선 문체부의 9개의 실·국 중 문화정책국(문화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투자자원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곳)의 문화정책과에서 각 분야별 '해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주로 한국예술 진흥원이나 영화 진흥 공사, 한국 문화재 보호 재단 등 문체부 산하 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며 각 신문사 논설위원이나 문예진흥원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심사위원들이 신청서를 심사하여 해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해가 공식적인 이름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인 조직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데 이는 예술진흥국(문예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곳) 예술진흥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예술진흥국에서 관련 인재를 발굴, 재원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가진 공식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이후는 민간차원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들은 자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지난 7년간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정된 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이나 책 같이 의미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중후지부지 되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7년간의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해가 몇개나 되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는 거의 의문이 아닌 문체부에서 사업을 지원육성에 있어 얼마만큼의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왔는가의 문제제기인 것이다. 한해 플래카드를 장식하는 이름이 아닌 여러해를 두고 기억하고 참 의미를 두고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안과 발전계획이 다시금 요구된다.

### 문체부에선 어떻게 해를 지정하나요?

문화체육부(장관=송태호 이하 문체부)는 91년부터 '00의 해'를 지정, 관련분야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한 장르를 지정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그 관련분야를 중점 지원·육성하겠다는 의도로 문체부는 그간 7개 해를 지정, 관련사업을 펼쳐 왔다.

이렇게 지정된 해가 공식적인 이름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인 조직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데 이는 예술진흥국(문예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를 지원하는 곳) 예술진흥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예술진흥국에서 관련 인재를 발굴, 재원을 확보하여 공신력을 가진 공식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이후는 민간차원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들은 자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지난 7년간의 사업을 살펴보면 지정된 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이나 책 같이 의미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중후지부지 되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7년간의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해가 몇개나 되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이름을 기억하는 거의 의문이 아닌 문체부에서 사업을 지원육성에 있어 얼마만큼의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왔는가의 문제제기인 것이다. 한해 플래카드를 장식하는 이름이 아닌 여러해를 두고 기억하고 참 의미를 두고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안과 발전계획이 다시금 요구된다.

최진 기자

## 문화재 발굴 앞서 '문화 가꾸기' 역량 키워야

문화재 역시 정신적 소산임을 절감하게 되는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의 희망마저 포기해야 할 무서운 긴 터널의 마지막에서 문화유산의 해라는 너무나 찬란한 문구를 남긴 채 울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하필이면 이러한 이름이 붙은 해에 왜 끝을 알 수 없는 역운

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려는 것일까. 저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도 좋아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슬픈 문화유산의 마지막에서 난파선과 같이 된 거대한 집단의 한 해를 진단하기란 단순하지 않다.

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지난날 치욕의 역사에 대한 자취 및 가치를 청산한다고 하여 쉽사리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란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깜짝 쇼'가 아니고 오로지 문화적 역량을 견지할 때에만 함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한 해 동안 수 많은 문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요술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온갖 수식어를 사용해 왕비의 미모를 칭찬했고, 계모 역시 그 말을 듣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날 왕비는 거울의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더 예쁘십니다'는 말에 발근해 거울을 앗아버렸고,

왕비는 더 이상 어떤 칭찬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한 해 유행했던 불치(不治)의 병이 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하나같이 거울을 손에 들고 다니며 '아름다운 내모습'을 중얼거렸고 노래도 '공주는 의로워'가 아니면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들이 뭐라하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는 상관없이, 오직

거울속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박(薄)통, 전(錢)통, 물(水)통에 이어 강통이 된 김영삼 대통령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임기간 내내 요술거울만 끌어안고 살은 듯 하다. '내사 마, 역사도 바로 세우려고 경제도 살릴까'라 고 말하면 '하모에, 각하가 최고라'에'만 읊조리는 요술거울들을.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민심을 읽으려 하지 않았던, 그래서 스스로 자기자만에 빠진 우리의 슬픈 대통령은 결국 말 그대로 아이엘에프(MF)가 되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낙제의 길로 빠져 버렸다. ▲무감어수(無感於水) 감어인(鑒於人)이라 했다. 물을 거울로 삼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표면에 천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말이다. 공주도 대통령도 자기만의 상에 갇혀서 까닭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거울에만 집착했던 까닭에 진실들 자각(自覺)할 수 없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옆에 사람을 보자. 그들에게 비추지는 내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궁금하지 않은가. 김기영 편집장

## 짧은 소식

### 학교 안에서

#### 경당학교

제14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겨울 방학 동안에 경당 학교를 개최한다. 정도술(권법), 기본법, 예도24세를 이원호 경당사범의 지도하에 수련하게 되며 참가비는 검과 검집을 포함해 3만원이다. 수련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지도받게 된다. 문의 및 접수는 오는 8일까지 대학원 총학생회(260-8761) 생활복지부로.



### 학교 밖에서

#### '근대를 보는 눈' 전시회

한국 근대 화단을 수놓은 명작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바로 '근대를 보는 눈' 전시회다. 개회기부터 50년대까지 국내작가 1백30명의 유화작품 2백80점을 전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55점의 미공개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누드화 제1호인 김관호의 '해질녘'과 나혜석, 이인성, 박수근, 최재덕, 정현웅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오는 3월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의 503-7744

#### 동계 영화특강

유럽문화연구소는 동승아트센터 후원으로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영화특강을 실시한다. 2개의 강좌가 개설된 이번 특강은 각각 '문화이론과 영화이론의 접점', '영화의 기본개념'에 관한 강의가 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인원은 강좌당 40명 안팎이며 수강료는 강좌당 9만원이다. 1월 셋째주부터 동승아트홀 2층 강의실에서. 문의 747-2062

#### 한국 호랑이전

'88년 범띠해를 맞아 '한국의 호랑이전'이 열린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등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서울시의 캐릭터 디자인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호랑이전'을 통해 오늘날 작가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탐구하고 형상화해내는지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갤러리 사비나에서. 문의 739-1407(갤러리 도울)



## 메아리

### 감어인(鑒於人)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요술거울에게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온갖 수식어를 사용해 왕비의 미모를 칭찬했고, 계모 역시 그 말을 듣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날 왕비는 거울의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더 예쁘십니다'는 말에 발근해 거울을 앗아버렸고,

왕비는 더 이상 어떤 칭찬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한 해 유행했던 불치(不治)의 병이 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하나같이 거울을 손에 들고 다니며 '아름다운 내모습'을 중얼거렸고 노래도 '공주는 의로워'가 아니면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들이 뭐라하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는 상관없이, 오직

거울속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박(薄)통, 전(錢)통, 물(水)통에 이어 강통이 된 김영삼 대통령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임기간 내내 요술거울만 끌어안고 살은 듯 하다. '내사 마, 역사도 바로 세우려고 경제도 살릴까'라 고 말하면 '하모에, 각하가 최고라'에'만 읊조리는 요술거울들을.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민심을 읽으려 하지 않았던, 그래서 스스로 자기자만에 빠진 우리의 슬픈 대통령은 결국 말 그대로 아이엘에프(MF)가 되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낙제의 길로 빠져 버렸다. ▲무감어수(無感於水) 감어인(鑒於人)이라 했다. 물을 거울로 삼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표면에 천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말이다. 공주도 대통령도 자기만의 상에 갇혀서 까닭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거울에만 집착했던 까닭에 진실들 자각(自覺)할 수 없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 옆에 사람을 보자. 그들에게 비추지는 내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궁금하지 않은가. 김기영 편집장

